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921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에 대한 질문.....	6
원죄 - 원래 초기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	8
8806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 위해 원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8
4551 왜 질문을 하는가? (인류학자 쾰른) 천사들의 타락. 죄.....	9
8863 악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10
8880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13
아담의 타락.....	16
5800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16
5967 유전된 죄.....	18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	22
4816 하나님의 공의. 죄와 속죄. 묵임과 자유함.....	22
850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24
8652 큰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요구한다.....	2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용서.....	28
8670 원죄는 존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28
774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29
5478 그리스도의 피. 죄짐.....	31
7330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32
1828 하나님의 질서. 죄.....	34
4039 사람들의 연약함. 죄. 사랑.....	35
6071 죄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36
4853 죄가 도를 넘어서는 일.....	36
5860 만연한 죄. 믿음의 싸움. 종말.....	37
영을 거스르는 죄.....	39
4053 영을 향한 죄.....	39
5971 오순절 1954년 6월 7일 월요일.....	40
7725 영에 대항하는 죄.....	41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43
4510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43
4547 보상해주는 공의. 죄와 속죄.....	43

8062 하나님의 공의. 심판. 구속사역.....	44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	46
3278 죄책감. 하나님의 긍휼. 보상.....	46
3335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47
8778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49
값지 않은 죄의 결과 - 죄에 대한 형벌 - 최후의 심판.....	51
6242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51
6596 용서받지 못한 죄짐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52
3321 마지막 심판. 죄에 대한 형벌과 은혜의 역사.....	53
4900 심판과 구원의 역사. 영적인 위험.....	55
후손을 통해 죄 값을 치르는 일.....	57
8296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57
3315 자녀와 손자를 통해 죄짐이 해결되는 일.....	59
6691 집착. 조상들의 죄짐.....	60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저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	62
6103 정산하는 때의 심판. 보응.....	62
3307 큰 죄짐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다. 파문.....	63
3909 저 세상의 죄짐. 속죄 또는 용서.....	64
4081 저세상의 혼의 후회.....	65
4888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죄짐.....	66
6220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67
8224 저세상에 있는 혼들의 고통이 가득한 운명.....	69
7910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70
8671 불행하게 된 것은 단지 자유의지의 책임이다.....	72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	74
3280 죄를 깨닫는 일. 의지의 행동.....	74
5181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75
9010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76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일.....	78
723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식적으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78
7783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79
8453 왜 예수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가?.....	8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83
589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	83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84
766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85
사람을 통한 죄의 용서.....	88
0444 죄에 대한 용서.....	88
0445 죄 사함.....	89
3297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89
4166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92
6709 너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93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96
0459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죄짐.....	96
3445 “나를 믿는 사람은...” 구속역사의 은혜.....	97
7836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과 믿음.....	98
2929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죄를 속죄하는 일.....	100
저세상에서 받는 구원.....	102
7235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102
7688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103
7950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104
8036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106
515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곳으로부터 혼의 구원. 저 세상.....	107
5929 지옥으로부터 구원. 십자가 형체의 빛의 광선.....	108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받는 힘과 강하게 된 의지.....	110
878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110
7839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112
9014 죽은 혼에게 능력을 주기를 구하는 기도.....	113
6383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115
3213a 자신을 다스리는 일. 강화된 의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116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힘의 부족의 해결을 구하는 일.....	118
3213b 자기 정복. 강화된 의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118
8418 구속사역의 은혜. 강화 된 의지.....	119
8420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120
1736 시험 가운데 힘을 구하라. 영적인 성장.....	122

7035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123
7284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124
7741 무능력을 해결하는 일. 기도와 구함.....	125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	127
7762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127
7066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128
8148 힘과 은혜를 구하는 요청은 언제나 성취가 된다.....	129
0906 죄의 용서.....	131
1430 중보자인 그리스도. 죄의 용서. 구속 역사를 인정하는 일.....	132
1434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132
5428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4
7717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135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에 대한 질문

B.D. No. 8921

1965년 1월 30일

나로 하여금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게 하라.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오류는 잘못된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언젠가 너희의 성장을 보장하는 순수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가장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한번이라도 떠난다고 믿으면, 너희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넘치는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았고 이로써 너희가 어떤 권세에 묶여 있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일을 쉽게 형벌의 심판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다시 심판하고 즉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야만 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인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파괴시키며 멸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에 대한 내 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에 가서 너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너희는 언젠가는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이런 운명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강제적으로 종말이 오게 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언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다시 묶는 방법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다.

너희가 이제 내 대적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내 사랑을 줄이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언젠가는 나는 너희를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파문을 감으로써 너희에 대한 아무 권세가 그에게 없게 되는 것도 이제 이에 속한 경우가 될 것이다. 단지 영이 깨어난 자들만이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가 속죄하는데 측량할 수 없이 어려운 이런 죄악에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아직도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한 구원시대 이상을 거쳐야만 함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 자신이 근원이 된 죄를 속죄하게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에게 부여 주는 내 사랑을 부정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 자신에 의해 너희 안에 악을 심어주었다는 생각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오류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모순된 것이고 깨어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가장 해가 되는 작품인 이런 생각이 이에 대해 즉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심장으로 영접했다.

즉 내가 항상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경멸하고 절대로 스스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불러 일으키지 않음을 그들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런 오류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까지 많은 말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미 깊이 역사했고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항상 인간의 이성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이성은 악이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왔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필요하게 만든 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존재들을 온전하게 창조했고 자유의지와 선과 악을 느끼는 느낌을 부여했다. 그러나 악은 내 대적자가 자신으로부터 악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도 악을 갈망했고 반면에 다른 존재들은 그들이 갈망을 선한 쪽으로 향했다. 나 자신이 존재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권세는 커서 그가 모든 악한 성품들을 존재들에게 전가했다. 이로서 그 혼자만이 이런 타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존재들을 같이 책임이 있게 했다. 그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왜냐면 타락은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을 대적하고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로써 이 죄는 존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은 이미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멘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 위해
원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B.D. No. 8806
1964년 5월 26일

너희 인간들에게 원죄로 인한 타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단지 인간적인 죄에 대해 드러진 속죄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 실제 너희는 구속사역을 반박한다. 왜냐면 너희가 믿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마지막 최소 단위까지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의 죄가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지은 것만이라면 이런 관점은 이해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들이 나로부터 떠나간 큰 원죄에 관한 것이고 이 죄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이고 너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창조 이유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이유이다.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했다.

누구든지 단지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한 타락만을 적용하면, 그에게는 이 죄를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것이 믿음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인류가 범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은 죄들은 실제로 내 사랑에 대해 어긴 것들으로써 큰 원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빛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죄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영들의 타락의 과정을 모르는 동안에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 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 이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자의 일로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리고 구속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버려야만 한다.

단지 나 자신만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원죄로부터의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내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조물을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는 너희와 같은 형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형체가 너희에게는 바로 인간 예수이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들이 나를 떠나 타락한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항상 지속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의 하나인 인류의 구원자, 너희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분의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인간을 위해 너희 죄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용서가 갑작스럽게 주어질 수 없고 너희 자신이 이를 얻기 위해 부탁해야만 한다.

왜냐면 타락이 자유의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는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완성에 이르기 위해 진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지은 죄도 용서를 받는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용서가 확실 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를 단지 구세주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인간으로 떠오른 선생으로 보는 잘못 된 가르침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에게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예수이다.

아멘

왜 질문을 하는가? (인류학자 켈른) 천사들의 타락. 죄.

B.D. No. 4551

1949년 1월 28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게 만든 원인은 인간에게 영원히 헤아릴 수 없게 머문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힘의 발산의 동기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볼 수 있는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들의 영역에서 한때 일어난 일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된 것이고, 영의 나라를 단지 약한 흥내를 낸 것뿐이고, 영의 나라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단지 존재했던 영의 나라에서 원래 초기에 일어난 일의 영향을 사람이 단지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들은 하나님의 힘의 가장 순수한 발산이었고, 결과적으로 영들은 또한 권세와 힘이 충만했고, 가장 높은 온전함을 가졌다.

하나님의 조성하려는 의지가 또한 그의 피조물에게 전가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실행하도록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헤아릴 수 없게 큰 창조하려는 의지가 존재 안에 있었고, 이제 제한없이 활동했다. 즉 기대 이상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창조물들은 항상 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존재는 빛과 능력을 넘치게 받았다.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왔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행복했다. 그의 창조물은 증가했고, 그의 축복이 측량할 수 없게 증가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를 시험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 존재인 루시퍼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혼 힘의 소유자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루시퍼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리는 일이었다. 이로써 루시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힘을 받는 것을 의식하고, 이 힘으로 자신의 창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힘의 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축복은 영원히 무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험은 단지 이를 인정하도록 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인 그가 자신을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끌어 올리도록,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그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는 실패했고, 그는 힘을 받는 자가 아

니라 힘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다. 그에게 주어진 충분한 힘이 그에게 충분한 증거로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통해 무수히 많은 존재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엄청난 권세와 힘을 지닌 창조주로 느꼈고, 교만과 지배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이제 아직 죄가 없었지만, 전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준 루시퍼의 영향아래 있는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죄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들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주었다. 그들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온전함으로 그들의 출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 존재는 단지 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의 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는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천사로서 계속하여 하나님 곁에 머물며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타락했고, 그들의 생산자에게 속하게 되었고, 자신이 동인이 되어 생산자의 뜻을 따랐다. 이로써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깨달음을 빼앗겼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힘의 효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적인 길로 깨달은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이 길은 이 땅의 물질적 창조물을 통과하는 길이다. 물질적인 창조물은 한때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생성되게 한 것이다. 물질적인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묶이게 된다. 즉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돌려주고, 영적인 존재가 다시 속하기 원하는 대상을 택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기까지 영적인 존재는 의무의 단계 아래서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성장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존재는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존재는 그가 한때 거절했던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식적인 요구하는 일을 통해 이 힘을 얻어야만 한다. 이 땅의 삶에서 자유의지가 올바른 사용되어야만 한다. 존재는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요 창조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가 다시 빛 상태로 들어가고, 빛을 받는 존재가 되고, 이로써 존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인 자신이 뜻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된다. 존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써 영원히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악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B.D. No. 8863

1964년 10월 3일

너희 사람들이 내 안에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듯이 너희가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올바른 관계를 이룬 것처럼 너희는 나와 올바른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깊은 겸손으로 채워져 있다. 너희는 나로부터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올바르게

게 기도하는 너희 누구에게도 너희의 이런 기대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올바른 기도에는 번복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겸손히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선물해주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말을 걸 때에 너희 자신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깊은 기도 후에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로부터 온 답변으로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는 내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이를 너희에게 너희가 단지 올바르게 나에게 기도하면, 다시 말해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 준다는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울리는 소리로 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깊은 기도 후에 너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내 답변이다. 너희는 진실로 나 이외는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없는 선한 생각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그러면 너희를 대적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의 나에 대한 자세가 나를 기쁘게 함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가능할 지라도 내가 울리는 소리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지만 나는 너희를 너희 혼의 성장 정도에 따라 돌봐줄 수 있다. (1964년 10월 3일)

만일 내가 울리는 소리로 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모든 오류는 사라진다. 왜냐면 너희 안에서 내 말이 선명한 종소리처럼 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넘치게 행복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깊은 지혜의 계시를 줄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계시를 염려할 것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탐구하면서 대적자에게 개입을 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작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의 이성이 잘못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음성은 그 사람의 의지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미리 "오류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나에게 울리는 것이 특별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 기도가 그를 대적자의 역사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대적자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악이 나로부터 근원되어 나왔는지에 대한 바로 이런 질문을 너희는 계시가 주어질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내가 악한 생각을 내 안에 가질 수 없음을 말할 수 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모든 것이 단지 선한 것 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존재들의 생각할 능력에서 너희는 해명을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생각하는 능력은 자유였고 나로부터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선한 생각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

자유의지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자유의지로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이 전에는 악이 없었고 악은 자유의지의 생산품이다. 왜냐면 존재들의 생각하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악은 자신의 권세를 나와 내 의지에 대적해 나타낸 자의 창조물이다. 그에게는 창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악을

창조했고 이는 그에게 속한 것이다. 그가 이 악을 세상에 불러들였다. 이로써 그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너희는 항상 가장 온전한 존재인 내 안에서 절대로 존재한 적이 없는 악의 짐을 나에게 지우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악의 근원이다. 그가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악으로 바꾼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내 사랑흐름의 모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영원한 질서를 벗어난 것이다.

너희는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존재였고 나로부터 비추어진 선한 생각을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꾸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내가 모든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존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가? 자신으로부터 악을 만드려낸 것이 그 자신이었다.

그가 자신 안에서 잘못 된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내 능력을 시기했고 이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악들은 그로부터 근원이 된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 때문에 이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로부터 그에게 잘못 된 생각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이런 존재인 루시퍼 즉 빛의 전달자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창조했던 존재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존재는 내가 그 안에서 내 형상을 창조했고 이 존재는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내가 가장 큰 창조의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아주 선했다.

그러나 우리 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수많은 존재들이 그를 거만하게 했다. 이런 거만함이 그의 생각을 잠시 동안 흐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내 성품에 반대되는 작은 자기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내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존재 루시퍼가 나로부터 떠날 것을 선언했고 그 안의 모든 것이 반대가 되어 깊이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 스스로 모든 성품을 만들어 냈고 나타냈다. 너희는 항상 단지 말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진 그가 악을 이 세상에 주었고 내 안에도 악이 있어 내가 이 악을 존재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다.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능력"이 꼭 타락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에게는 수많은 수단이 주어져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타락하게 했다. 내가 가장 높은 존재로서 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반면에 그러나 그는 모든 빛의 충만함으로 비칠 수 있어 그들이 비록 밝은 빛 가운데 있었을 지라도 루시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타락은 영원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에게 의해서 순수하지 못한 영으로 창조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악한 성품들은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절대로 이 악한 성품이 내 안이 근원이 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반대로 나와 같이 권세가 있었던, 그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왔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자 안에서 근원이 되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영들이 나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악은 시작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온전 했다. 그도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은사를 내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제외 된 것은 아니다.

나로부터 항상 그에게 선한 생각만이 흘러 들어 갔고 내가 미리 정하지 않은 그의 생각하는 능력이 타락을 가져오게 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수많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 알려 준다. 이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같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루시퍼가 자신 안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그가 악을 세상에 주고서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하며 나 자신에게 타락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오류로 인도받을 만한 사람들을 항상 오류 가운데 인도하려고 함을 발견했다.

아멘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B.D. No. 8880

1964년 11월 8일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은 너에게 항상 계속하여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까지 갈지만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다.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출처를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는 단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잘못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이런 보장은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심지어 내 진리의 전달자에게도 전달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빛이 전달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함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을 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대적자가 특별히 빛을 전하려는 너희에게 역사를 말한다. 그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장에 그들이 받은 것의 진리성에 의심을 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 역사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항상 분명하게 대적자가 이미 침범한 곳에서 오류를 밝혀 낼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목표는 너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 순수한 진리를 열망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창조의 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빛의 전달자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졌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은 항상 더욱 빛나게 나를 향해 타올랐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같은 창조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축복을 측량할 수 없이 높일 수 있었다

창조된 존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왔으며 그들이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진 대로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의 일이 저하됐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과 그들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게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 안에서 굳어졌다.

그러나 나로부터 한때 나온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경을 시켰다. 이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너희는 이를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영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절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또는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든 설명들을 오류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할 때 까지는 내 의지 아래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굳어지게 되었다. 내가 한때 존재로 발출시킨 내 능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입자로 분해가 되어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되어 이 입자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존재들은 모든 반발심과 대항해 싸워야 했다. 왜냐하면 이 들은 자신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는 일은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있었다. 이 존재들은 가장 밝은 빛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있어 단지 내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존재들이 나에게 진실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의지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갈 때에 그들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굳어지게 되었고 행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영원 전부터 루시퍼와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타락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빛의 전달자 루시퍼에게 같은 모든 능력을 주었고 이 능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에게 전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인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들이 나를 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자신을 달음으로써 이 모든 일은 단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으로 출발되어 나왔다는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의지 안에서 존재의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에게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잘못 된 의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것은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시퍼는 내 반대 극이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근원이 그 자신이었고 존재들에게 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적자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내가 존재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귀환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잘못 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 만으로도 이미 악이 내 안에서 근원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신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요약해서 내가 내 안의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선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내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악했고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 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권세가 있었고 그는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내 대적자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속임수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내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였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존재에게 혼동의 상태가 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 가운데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로써 분해가 되어 묶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동안에 타락한 자 안에 넣어진 루시퍼의 생각이 원인이 된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 내 과정이 되었다.

이로써 사탄은 원하지 않게 이런 귀환의 역사에 참여해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를 영원으로부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그를 내 반대의 극으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도 자유로운 존재로써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B.D. No. 5800

1953년 10월 31일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내 각각의 창조물들도 역시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항상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내 창조물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야만 했다.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체가 창조되었고, 이런 형체에게 항상 또 다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순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장정도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형체를 찾을 때까지 무한하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항상 성숙하게 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릴 새로운 창조물을 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창조하는 일은 가장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성숙할 장소로서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야 할 장소에서 존재가 한때 잘못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돌려줘야 하는 성장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한 형체가 창조되어야만 하고, 이로써 창조된 형체 안에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더하여 이성과 이해력을 받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의지를 시험하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이웃과 언어를 통해 교통할 수 있는 점에서 인간은 이 전에 생성된 창조물과는 다르다.

인간의 걸 형체는 이미 의무 상태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무수히 많은 성숙한 혼의 입자들을 받아드리도록 정함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걸 형체의 생명체는 아직 의무의 단계에서 자연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생명체는 아주 적게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끝없이 긴 성장기간에 걸쳐 성장해 온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내 지혜와 사랑이 형성한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나 단지 자유의지와 이성과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소유한 인간을 비로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피조물을 영화시키는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런 존재들인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런 내 가르침대로 그들의 생각할 능력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살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 가르침들과 내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올라선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인간을 창조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에게 내 지혜와 내 사랑에 합당하게 걸형체를 부여했고 또한 인간이 이제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이제 혼으로써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적인 존재

가 걸 형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걸형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힘이고, 실제 예비 단계인 끝없이 긴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묶여 있었고, 제한이 없는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걸 형체인 인간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다시 행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힘을 확장시킬 수 있고, 나와 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힘을 무한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내 힘이 제공됐고, 그들은 특별하게 힘을 받았다. 왜냐면 그들의 이 땅의 시험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세상의 걸형체를 벗고, 진정한 자녀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의지의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최초의 인간이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쉽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1953년 11월 1일) 최초의 사람들이 나를 떠남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안에 존재를 창조했고, 그들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한 존재들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하는 힘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 뜻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나와 떨어진 거리가 멀지라도 이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닌 최초의 이 땅의 창조물이었다. 인간은 이제 원래 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그가 다시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영원이 하나가 된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의 과제였고, 이 과제는 종말의 때까지,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완전히 영화되기까지, 모든 인간의 과제로 머문다.

첫 번째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의지의 시험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 내 대적자에게 그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를 부여해야만 했고, 인간이 이 영향에 굴복했다. 그는 두 번째로 나를 떠났고, 이 일은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이었고, 비록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영의 타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인류는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을 알았다. 그러나 영의 타락이 비로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최초의 사람이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존재하게 된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창조물이었다면, 타락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그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를 영들의 타락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인간의 혼에게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혼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는 있었지만 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실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내 대적자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싸움과 고통이 함께 하는 고된 이 땅의 삶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타락으로 연약해진 인류를 돕기 위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자원하여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모든 후손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탄의 속박 아래 머물러야만 했다.

(1953년 11월 2일) 내가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요구한 의지의 결정은 절대로 계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가 가진 의지의 방향은 유일하게 권력과 혼자서 지배권을 가지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에게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실제 의식했지만, 그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출처로 깨달았지만,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주지 않았고, 존재가 스스로 내가 준 자유의지로 변화가 되었다. 이 점이 루시퍼의 첫 번째 타락과 첫 번째 사람의 타락 사이의 차이였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가 어기지 말아야 할 계명을 주었고, 대적하는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쉽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직 대적자의 일부였고, 인간이 타락을 불가능하게 만든 완벽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자가 인간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인간이 계명을 어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안의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의 타락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러싸고 있는 걸 형태로 영적인 존재를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형체 안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거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 아담은 이미 한때 지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유전된 죄짐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타락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을 끝없이 지연시켰지만, 그러나 인간 아담이 해야 할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다시 전적으로 연합하고,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을 내가 주는 계명이 없이 행한,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멘

유전된 죄.

B.D. No. 5967

1954년 5월 29일

너희가 대답 받기 원하는 질문이 항상 너희 안에서 떠올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긴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너희가 영의 음성을 통한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내 응답으로 간주해야 한다. 너희의 갈망과 나를 향한 부름이 너

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없이는 너희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세력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진리의 제공자인 나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다음 말을 해줘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의 끝 없는 깊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역사와 통치의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이 부족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설명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받아야만 하고, 단지 너희의 이해할 능력에 따라 너희에게 내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묘사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영적인 과정들은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사람의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과정은 단지 연약한 비유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영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전에 타락한 일을 통해 잃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먼저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의지에 제한을 가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처음으로 한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들을 생성되게 한 나에게 반역한 첫 번째 죄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창조물을 생성되게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들은 나를 실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깨닫도록 강요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자유의지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1954년 5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집중해야만 했고, 금지와 유혹이 동시에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연히 유혹은 약속으로 끌어드리려는 일과 연관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저항해야 한다.

금지과 유혹은 양측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과 내 대적자에게 머무는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창조한 존재가 목표에 도달하거나 또는 깊은 곳으로 새롭게 타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욕망이 주어져야만 하고, 사람에게도 또한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하거나 또는 훨씬 더 높은 목표이고 이 땅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일보다 천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은 나와 내 대적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도 또한 영적인 존재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대적자는 속이는 가짜 재물과 가짜 행복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히 축복된 삶을 잃게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알았고 그러므로 내가 최초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계명을 주었다. 이런 경고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안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게 하기에 충분해야만 했다. 내

대적자는 내 경고와는 반대로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최고의 권세로 깨달았지만 그러나 거짓을 따랐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그들이 욕망에 굴복하게 했는가? 그들은 낙원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 아래 있었고, 그들은 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가운데 행복하게 느꼈다. 긴밀한 사랑은 또한 최초의 창조된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이미 내 대적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랑이 나와 동역자에게 향한 동안에는 의지의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들의 사랑이 요구하고 이기적이고 낮은 차원의 사랑이 되었고, 이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돼야 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망보다 내 계명을 더 높게 여겼더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의 권세에게 그들 자신을 드렸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첫 인간 부부를 축복하기 원했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첫 인간 부부가 죄를 지었다. 내 창조 계획을 따르는 어떤 일에도 죄가 없고, 법적인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에 죄가 없고, 출산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에 어긋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려는 의지가 없이 감각의 만족시키는 일은 신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내 대적자가 타오르게 한 자기 사랑이고, 사람들을 끌어 내려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빠지게 한다.

최초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런 거짓 사랑이 죄였다. 이 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 원죄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 죄는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죄이다. 이런 죄는 그들을 생성되게 한 자로부터 유전된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없는 죄이다. (1954년 5월 29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심장 안에 불씨로써 놓여 있고 가장 큰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목표였고 목표인 이런 사랑을 뒤집는 일을 내 대적자가 성공시켰다.

순수하고 신적인 것이 불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단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랑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번식하는 일이 또한 수많은 혼들이 내 대적자에게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과 행복하게 되는 일이 최정점에 달해야 하는 번식하는 일이 내 축복 아래 일어났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랑을 위한 순수한 신적인 사랑을 잃게 된 일이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사탄의 영향으로 꺼졌고 대신에 모든 고귀하고 순수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불이 타올랐다. 감각이 자극을 받아 가장 높은 욕망이 되게 했다. 이런 일은 내 창조의 역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대적자와 내 피조물의 자유의지 때문에 방해

받지 않았다. 왜냐면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타락은 번식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고 자유의지로 불을 붙인 그릇되고 죄악된 사랑이었다. 신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게 하는 창조역사가 불결한 영들의 놀이로 변질되었다. 내 대적자가 나 자신이 내 축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역사는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이고, 이로써 이제 이 사랑이 생성된 존재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를 통해 항상 밝은 사랑의 빛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나에게 돌아 오는 길을 찾고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인류가 나오게 했을 역사이다. 왜냐면 사랑이 발산되는 곳에서 나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은 이 의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혼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웠기 때문에, 대적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 일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내 피조물이 귀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은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다시 위로 향하는 길을 만들 때까지 더 이상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랑이 내 대적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이 사랑은 나를 떠나 타락한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죄와 속죄. 묵임과 자유함.

B.D. No. 4816

1950년 1월 11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특정한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했다. 즉 그들은 특정한 지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지식을 실제 이해하는 상태에 있게 하는 일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면 깨달음을 가진 상태는 인간이 높이 성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추구해야 하는 혼의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 것이고, 그에게 깨달음이 임의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높이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의 방식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단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단지 열심히 사랑을 행하면, 그는 더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단지 심장 안의 질문을 다루면 되고, 그러면 심장 안에서 올바른 답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진리를 합당하게 생각하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 자체로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영이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고, 자주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성장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일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의 영이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사람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영접하게 하는 특정한 믿음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깨어난 영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50년 1월 13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아주 큰 죄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신성에게 죄를 지은 영원한 신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존재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너무 컸다.

이 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일과 함께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질서 위반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는 자신의 기본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죄하는 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왜냐면 죄가 끝이 없게 무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영적인 존재를 연약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존재는 모든 힘을 잃었고, 더 이상 스스로 가파른 길을 갈 수 없었고, 빛의 존재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긍휼히 여겨, 존재들이 깊은 곳으로 완전히 가라 앉기 전에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줄 때까지 계속하여 더 깊이 타락했다.

빛의 존재는 죄를 속죄해주기를 원했다. 그는 불행한 존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다. 존재들은 끝없이 긴 성장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인간 단계에서 그들의 무기력으로 인해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 빛의 존재가 이 땅으로 임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을 돕기 위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다. 빛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목적을 잊은 존재들의 불행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빛의 존재는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고 있었다. 빛의 존재는 영의 나라에서 이 땅과 땅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깊은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빛의 나라에서 온 빛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러워할 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일이 큰 반대에 부딪혔다. 어둠에서 온 존재가 말과 행동으로 빛의 존재를 대적했고, 빛의 존재가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는 곳에서 묶었다. 즉 어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소원과 행동을 유도했다.

그러나 어둠의 존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어둠의 존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미로 일했다.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께 행한 불의를 고치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둠의 존재에게 대적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람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의지가 묶여 있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와의 싸움에 임해야만 했다.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였고, 그의 의지는 아주 강했고, 대적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로 대적자에게 대항했다. 이 무기는 사랑이었다. 사랑이 예수를 하나님과 연결시켰고 하나님의 힘을 받게 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보다 월등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1950년 1월 14일) 그러나 속박은 위를 향할지 아래를 향할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 자의 영향을 통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가장 큰 자극을 느끼는 일이고, 이로써 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육체를 기쁘게 하고, 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신을 위해 얻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 가운데 대적자는 적은 저항을 받았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모든 충동이 대적자의 원칙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대적자의 권세에 복종했다. 대적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항상 그를 압박하여 그가 항상 대적자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멀어지게 되었다. 인간은 의지가 묶여 있는 약한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대적자에게 대항했다면, 그가 저항하는 일이 아주 쉽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저항할 힘을 주는 사랑을 통해, 즉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사랑을 통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단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해주는 한 구세주가 와야만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과제를 깨우쳐줘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적 위험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힘을 줘야만 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사슬을 풀어줘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단지 인간의 영의 상태로까지 확장되었다. 인간의 영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서는 일이 불가능했다. 바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주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힘과 빛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적 기금을 구매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물을 구매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그들의 죄의 용서할 권리를 구매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랑의 역사를 기쁘게 여겼고, 예수가 그의 이웃을 위해 자신에게 아뢴 요청을 성취시켜주었다. 하나님은 이웃을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족했다. 하나님이고 인간인 예수의 사랑이 아주 강해,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원한 신성에게 만족을 주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고, 자신의 피로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일은 단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 받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존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유한 가운데 의지의 시험이 필요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8504

1963년 5월 21일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렇게 하게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모든 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공의도 내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나는 죄를 범한 존재를 축복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내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영원한 법칙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사랑은 단지 온전한 존재만을 축복할 수 있고 이 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도우면서 공의가 은혜를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의지는 존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들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존재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내 사랑으로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대적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내 공의가 사랑이 이전과 같이 존재들을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 스스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절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이로써 내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동안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서 쫓겨났어야만 했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려면 영원한 신적인 법칙에 따라 속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간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들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내 공의는 만족 되었다. 내 사랑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나로부터 한 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나를 떠나간 죄가 범죄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존재 의지와 반대로 그에게 사랑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의 저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상품의 속한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온전함의 근거인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는 이 전에 그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이 법을 성취시켰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때 타락한 자들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했다. 나는 나를 떠났던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짊어진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만족했다. 나는 인간이 예수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예수 안의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죄사함은 내가 고난받을 능력이 있고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는 타락한 자들의 죄짐에 대한 대가로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스스로 당한 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단지 완성시킬 수 있는 속죄를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제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다시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사랑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한때 죄를 지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죄를 자유의지로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서 이를 예수에게 전가해서 내 공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라도 이 존재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는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들에게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물해주길 원하는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죄짐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내가 공의한 하나님으로서 요구해야만 하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수 안의 사랑 자신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큰 죄에 대한 보상이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온전함은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큰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요구한다.

B.D. No. 8652

1963년 10월 22일

만약에 너희에게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거쳐야만 했던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에 관한 지식이 주어지면, 그래서 너희가 이에 관해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남으로 너희가 짊어진 죄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 공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견디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내가 준 형벌이 아니고 다시 내 끝없는 사랑의 작품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영원한 질서의 반하여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축복된 삶을 마련해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나를 대항해 거절함으로 이런 경우가 되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인간으로써 너희 생각이 단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죄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한번 타락했던 존재들은 현재 너희 사람들과 같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장 밝은 깨달음의 빛 가운데 있는 온전한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측량할 수 없이 커서 이 죄에 대한 속죄의 사역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속죄는 창조물을 거치는 끝 없이 긴 과정을 통해 이를 수 없고 큰 죄를 최종적으로 사해줄 수 있기 위해 인간 예수가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완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위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너희가 떠났던 빛의 나라에 다시 돌아 가게 되면, 너희는 나를 대적한 것을 의미하는 큰 죄를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도달한 성장 정도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인간으로써 너희는 그러나 너희에게 그리고 모든 각각의 혼들에게 이런 구속사역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에 관해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어야만 하고 증거가 없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가 한때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받는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나에게 너희 자신을 다시 맡기게 된다.

동시에 너희가 한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저항을 했던 분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비록 인간인 너희에게 모든 것에 관해 전체적인 설명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너희는 모든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택하면, 이는 너희 사람들에게는 항상 믿음에 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너희의 유일한 안전한 구원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죄를 넘겨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들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의 피로 사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에 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증명할 수 없다. 너희는 자유롭게 어떤 강요도 없이 이를 믿어야만 한다.

너희는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너희가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한가지는 너희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사랑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사랑을 통해 내적인 깨달음의 빛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사랑을 통해 다시 나와 연결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비추어 줄 수 있는 죄로 인한 타락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너희 자신이 사랑을 행하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고 너희가 전처럼 내 사랑의 비추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나에게 자신을 열고 내 사랑의 흐름이 너희 안에 제한을 받지 않고 흘러 들어가게 만들 자세가 되었으면,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도 비추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십자가의 길을 택했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는 아직 너희가 사랑을 행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너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두려는 내 대적자의 족쇄 아래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죄는 아주 크다. 이 죄는 너희 스스로는 영원히 이 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그의 구속을 받게 허용을 하면, 사함을 받는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너희를 내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실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의는 남김 없이 죄사함을 요구한다. 이 죄사함을 너희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아멘

원죄는 존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B.D. No. 8670

1963년 11월 11일

너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인 끝 없이 긴 기간을 걸쳐서 너희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그럴지라도 이런 고통으로 나를 떠났던 나를 대적하며 의식적으로 거절했던 원죄를 사함 받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 죄는 비록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 너희에게 말해 준 것과 같이 너희가 가장 밝은 깨달음의 상태 가운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즉 너희는 비록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고 너희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사랑 안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와 같았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사랑에 대항해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원래의 성분인 사랑을 거절했다. 너희는 모든 신적인 것을 잃게 되었고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다. 만약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든 부족하게 창조되었다면, 너희의 죄가 측량할 수 없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너희가 신적인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온전함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이 죄를 범했다. 이의 결과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의 결과는 영적인 입자로 딱딱하게 되는 것이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비추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입자들은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너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영원한 사랑을 대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죄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최악되게 된 존재 스스로 절대로 대가를 치를 수 없었고 이런 죄가 바로 전적으로 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죄를 지은자에 의해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단지 나로부터 타락한 모든 존재들은 한때 나로부터 배출되어 나온 능력이라는 것이 즉 내 일부분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피조물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길을 찾아서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길은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즉 죽은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서히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면 비록 고통이 너희에게 표현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 것은 큰 죄에 합당한 속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일부분이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아주 큰 죄집에 해당하는 속죄사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존재들은 한때 축복되었지만 그들의 축복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런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존재가 자유의지로 이 죄집을 짊어지고 다시 자신의 축복을 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반발심 가운데 사랑을 거절하는 것

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축복을 희생하여 단지 타락한 형제들을 축복되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의지로 축복되지 못한 운명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는 자유의지로 타락한 존재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빛과 능력을 포기했다. 그러나 사랑의 없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사랑의 나타난 결과였다. 이 존재는 인간으로써 인간이 견딜 능력을 넘어서는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는 내 대적자의 추진력으로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이 자신 한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야만 했다. 그의 큰 사랑이 십자가형을 수행하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게 했다. 이 사람이 빛의 존재였던, 이 땅에서 나에게 곁형체가 되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만든 내 사랑의 힘으로 그를 채울 수 있게 된 예수이다. 그래서 나 자신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사랑 자체만이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고통을 짊어질 수 있게 단지 하늘의 한 최고의 영이 생명이 되게 한 인간의 형체를 사용했다.

그와 나는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으로써 나는 그 안에서 거했고 그의 인간적인 육체는 너희에게 설명한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인간으로써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절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한 가지는 너희가 알고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예수의 구속사역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인간의 형체 안에서 원죄를 해결해주기 위해 타락한 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왜 나로부터 타락한 죄가 커서 스스로 죄사함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너희는 언젠가 온전한 상태에서 내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이를 거절하는 것이 한 존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단지 사랑 자체가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다. 영원한 사랑 자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를 행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을 해야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의 사함.

B.D. No. 7748

1960년 11월 17일

내 너희를 향한 큰 긍휼로 나는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내가 생성되게 한 존재들이 나를 대항해 죄를 졌다. 창조된 존재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요구했던 결정해야 할 때 단지 창조된 존재의 일부분만이 나에게 남았다. 그들은 나를 보기를 원했다. 그들이 나를 보았다면, 거대한 빛의 충만한 때문에 존재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존재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내가 내 형상으로 첫 번째로 생성된 존재에게 향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떠나 그 존재에게 향

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깊은 곳으로 떨어진 큰 죄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겼다.

이제 타락한 영들이 처해 있는 빛이 전혀 없는 존재들을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영원히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나는 긍휼히 여겼다. 한때 존재들을 창조한 일은 사랑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들을 깊은 곳까지 따라갔다. 내 끝없는 사랑은 타락했지만 나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중단되지 않았다.

왜냐면 존재들은 내가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쉬지 않고 흘러갔던, 그로 하여금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든 내 능력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죄를 졌다.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나는 이런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긍휼히 여겼다. 나는 어느 주인에게 속하게 될지 의지의 시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원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연약하게 된 존재들은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줬다면, 그들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존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존재들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한때 지은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능력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구속 사역을 하게 했다.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내 긍휼은 아주 컸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짐을 짊어지고 속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죄의 역사는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속죄를 행할 자세를 천명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그의 사랑의 역사는 아주 고통이 충만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고에 달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실제 죄 사함을 이룬 분이다.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의 큰 권세였다.

나는 모든 능력으로 인간 예수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므로 사랑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의 형체 안에 있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고난을 당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죄짐을 해결했다. 사랑이 긍휼히 여겼고 사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60년 11월 17일)

사랑만이 단지 유일하게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공의는 내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면, 내 온전함에 의문이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의 때문에 내가 내 피조물들을 다시 내 빛과 축복의 나라로 영접하기 전에 큰 죄가 해결돼야만 했다. 사랑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안에 거하는 길을 찾았다.

사랑 자신이 큰 죄짐을 짊어지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일을 자원해 맞이하게 했다. 그 안에 영원으로부터 사랑인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 단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단지 큰 공훈만이 나로 하여금 아주 크게 불행하고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내 피조물들을 영접하게 했다.

왜냐면 대적자는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에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런 그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나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 싸운다. 나는 그들의 의지가 강하게 되게 도와 그들 스스로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시도하게 한다.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인간 예수는 나 자신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했고 내가 전적으로 모두 그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그가 단지 자신 안의 사랑이 제시하는 것을 원하고 행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구속사역을 실행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단지 그의 겉형체가 사람들의 눈에 인간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겉형체는 영화되었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까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단지 인간 예수만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컸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고난은 형용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는 나를 믿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죄짐.

B.D. No. 5478

1952년 9월 2일

이 땅의 내 자녀들아, 나는 내 피를 흘렸고, 너희를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갔다. 왜냐면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너희가 벗어나도록 내가 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희생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이 희생 제사는 너희를 위해 드려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간청했 일과 이를 위해 내가 희생한 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너희가 처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 시대의 이 땅이 사람들이 단지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역사에 포함시켰고,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했고, 그들은 이제 이 땅의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희생의 죽음은 가장 큰 긍휼의 역사였고, 나는 전적인 의식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고통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을 긍휼히 여겼고,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이 내가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실제 이런 내 구속역사가 내 성품이 완전히 신적이게 되는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영광을 목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해 고통을 받고 축복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사랑이 아주 권세있게 나를 충만하게 채워, 내가 사랑으로부터 긍휼의 역사를 실행할 힘을 얻었고, 인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었다. 나는 불행한 형제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런 형제들은 한때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에게 정해진 길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축복을 알았고, 축복되지 못한 타락한 존재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를 하나님께 되돌려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에 대한 내 사랑도 아주 컸다. 유일하게 이런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희생을 받아들였고, 내 사랑은 타락한 존재들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런 죄짐은 사랑없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속죄를 받아들였다.

나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내 피를 흘렸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일을 속죄했고, 너희 죄를 내가 짊어지고 속죄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를 위해 드러졌기를 원해야만 하고, 나와 내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자원하여 속하면서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인정과 너희의 의지가 없다면, 너희는 죄짐을 지고 있고, 너희를 타락하게 만든 자의 사슬에 갇혀 있게 된다.

내가 실제 너희 모두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의지가 비로소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가 자유의지로 저지른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뒤야만 하고, 나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너희는 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내 피로 해결하기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B.D. No. 7330

1959년 4월 9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모두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원하면,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면, 받

들 수 있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의 제공이 없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는 일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구속사역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 받은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기 원하면, 그는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또 다시 나로부터 요청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게 인도 받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그의 눈 앞에 둔다. 이 십자가가 그에게 주는 인상이 그의 영원 가운데 계속되는 운명을 정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떠난다.

왜냐면 십자가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뒤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자주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때 비로소 이 길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곳에서 삶의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직 결정적인 개념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자신의 원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속죄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이 길을 절대적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이 길만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그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가 자신의 이 땅에 과제를 단지 세상 일을 함으로 성취한다고 믿으면, 그는 언젠가 비참한 가난 가운데 죄짐을 지고 능력이 없이 저세상에 도달할 것이다.

그가 구속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겉 형체 안에 나 자신이 거했다.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나 자신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나라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나를 지나쳐 간다. 그의 운명은 그가 언젠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려는 결심을 하기까지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어둠과 고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위해 준 법에 주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일을 의미한다. 동시에 내면의 음성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면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또한 더 높은 성장 과정을 가게 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 왜냐하면 창조물의 의지가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조물이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준 법을 따른다.

단지 사람만이 이 법을 뒤집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을 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는 자유롭고, 그의 의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위반은 더 높은 성장과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심지어 자주 성장을 못하게 하면서, 그의 혼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인간들 자신이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모든 일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히 따르는 삶이 사람이 성장과정에서 전진하는 일을 유일하게 보장한다.

그가 이제 심장의 음성이 자신을 인도하게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면의 음성은 그의 인생의 길에서 나지막이 인도하고,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음성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벗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말을 한다. 인간은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 실행 불가능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바꾸었다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편에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요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저항을 극복하는 일이 높이 성장하는 일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고 따라서 죄이다. 사람이 단지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지를 기준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는 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죄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일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깊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묶임을 받은 의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이미 벗어나게 된 자에게 돌아 가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는 존재에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도록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존재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갈망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사람들의 연약함. 죄. 사랑.

B.D. No. 4039

1947년 5월 14일

볼 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양심의 음성으로 너희 심장 안의 훈계와 경고를 주었다.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계명이지만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을 크거나 적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한 최종적인 목표는 혼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고, 사람이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혼은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고, 혼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혼은 위를 추구해야만 하고, 따라서 이 땅의 재물보다 영적인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혼은 세상을 이겨야만 하고, 영의 나라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유물보다 영적인 재물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는, 그는 세상을 남김없이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런 일은 그에게 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데 단지 장애가 된다. 사람은 스스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욕망과 죄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이를 고려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혼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연약한 때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대할 것이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그가 너무 많이 세상을 섬기면, 그가 단지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 더 많이 속하게 될수록, 즉 자신의 몸을 너무 많이 충족시킬수록, 그후에 혼의 대한 작업은 더욱 강렬하게 시작돼야만 한다. 그러나 정도가 이제 말을 해준다. 왜냐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영적인 역사보다 크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그에게 성장할 힘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1947년 5월 14일) 그러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머무는 사람은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은 모든 안건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그의 몸과 혼이 위험에 처할 때,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는 도움의 수단인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없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해야만 하고, 자신을 본능의 노예로 만들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사랑을 행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일은 고귀하고 선하고, 사랑이 없는 일은 쉽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보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인도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죄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일이다.

B.D. No. 6071

1954년 10월 6일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죄가 우세하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일이 죄이기 때문이다. 죄는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일이다. 사람들이 이제 더 적게 사랑의 삶을 살수록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자의 손에 자신을 넘긴다. 죄는 사랑없음에서 유래한 모든 불의이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영원한 사랑에 반항한다. 왜냐면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자기 사랑은 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는 실제 자신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서 물려 받은 잘못 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었고 이로써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는 실제 넘어질 수 있다. 즉 그는 연약함으로 인해 대적자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그를 반복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자신의 불의를 선하게 만들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성품 자체가 죄를 거부하고 사랑과 반대되는 의식적인 잘못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죄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되면 그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비로소 죄에서 돌아 서고 비로소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사랑없음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불의가 확산되고 사람들은 이웃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할 것이고 소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형제애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거나 또는 은밀하게 대적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자녀가 되어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죄가 흥왕하게 된다.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의 날을 불러들인다. 왜냐면 모든 것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법에 따라 종말이 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 다시 사랑과 공의가 지배하게 된다.

아멘

죄가 도를 넘어서는 일.

B.D. No. 4853

1950년 3월 7일

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이 정욕과 죄 가운데 산다. 왜냐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탄이 속삭이는 소

리를 자원하여 따른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 간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죄가 유혹하는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이 멸망받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잊고, 이로써 절벽 앞에 서있음을 알게 된다.

사탄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질식될 것이고,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록된 대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의지와 너희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을 순수하게 지키라. 악을 경멸하라. 이로써 죄가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않게 하고, 죄가 너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 안의 경고자를 침묵하게 만들지 말라.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음성에 주의하고, 이 음성을 따르라. 죄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언젠가 공의하고, 모든 죄를 심판할 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죄는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자극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지 말라. 육체에게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말라. 왜냐하면 육체가 너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에 빠지고 죄를 경멸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눈 앞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사탄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너희를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죄는 너희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통해 너희를 나의 대적자에게 속하게 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희에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아멘

만연한 죄. 믿음의 싸움. 종말.

B.D. No. 5860

1954년 1월 23일

죄가 지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고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면서 그들의 본능대로 자유롭게 살 때,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고 모든 갈망이 단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위한 것이 되면, 종말이 오고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종말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 주위를 둘러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눈을 뜨고 주의를 기울이면, 선한 의지를 가진 너희는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너희는 모든 징조가 가까운 종말의 징조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 가운데 살고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 없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도 항

상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에 빠지고 일부는 이 땅의 삶에서 저세상의 삶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죄악되고 사탄적인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죄악되고 사탄적인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너희 사람들은 종말 직전에 있게 된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재판관 앞에 서게 돼야만 하는 일을 오래 전에 너희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모든 영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공격을 받고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서 방해를 받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것에 대해 격노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때가 이미 온 것이다.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아직 완전히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공격하여 단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건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사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안으로 사탄이 육신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각각의 사람들이 보복을 외칠 것이고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행하는 일들을 끝내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모든 인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기록이 된대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에 모든 사람이 그가 벌어드린 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을 향한 죄.

B.D. No. 4053

1947년 5월 31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때, 즉 땅에 있는 내 종들을 거부하거나 나의 말씀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일은 영을 향한 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특별한 은혜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일은 영의 음성으로 주어지며, 인간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는 일은 나의 영이고, 최고의 영적 선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은혜의 선물이고 감사로 받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내 선물로 깨닫고, 진실에 감동을 받고, 내용면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에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그 내용을 향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내용을 자신의 지적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꺼리면 영에 대해 죄를 짓는다. 나 자신이 그에게 가까이 왔고 그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문을 두 드렸고 입장을 요청했지만 그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하지만 그는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양식과 포도주, 나의 살과 피를 바치고,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의 길을 위해 새 힘과 힘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한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접근한 사람은 은혜가 그에게 다시 주어지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움해야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다시는 쉽게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영을 향한 죄는 아주 심각하다. 왜냐면 이런 죄가 완전히 깨달음이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한번 그의 거부를 통해 빛을 끄려고 시도하면, 나 자신이 그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빛이 비추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를 밝게 해줄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고, 그의 옛 길에서 내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지만, 그가 옛 길을 가는 일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영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나의 나라에서 온 계시의 내용을 깨달을 의무가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내용이 나에게서 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선물로 평가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기쁨으로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고, 사방에 전해야만 한다. 이로써 스스로 자신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또한 나의 계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적인 내용을 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임재가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나를 향한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나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들이 이 땅의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빛의 존재로 형성할 정도의 은혜를 보장한다. 왜냐면 나의 말

씀이 그들에게 동시에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을 거스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빈손이 된다.

아멘

오순절 1954년 6월 7일 월요일

B.D. No. 5971

1954년 6월 7일

영을 향한 죄.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는 용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에게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다. 그는 너희와 아버지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 연결만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향한 증거를 의미한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발산이기 때문이다. 그의 영이 열린 그릇에 쏟아지고 있다. 그일은 사람의 심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다.

"영에 대항하는 죄"가 이제 언급된다면, 그일은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만 이해 될 수 있다. 더 나은 지식을 향한 깊이로의 재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향한 반란. 그에게 지식을 가져다 준 어느 정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바로 사람이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이미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곳에서 들어 올려 졌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유대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전류는 용서로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죄이다. 영원한 시간을 통해 추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거절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 사고의 깨달음, 안전한 인도를 가져 왔던 곳에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드물지만 성공적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견딜 힘이 있고 지식도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유의지가 있다.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부여 될 수 있는 것, 즉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행복을 원할 때 의지를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용하다. 더 이상 그의 깊은 지식에 뿌리를 두지 않고 사탄에 의해 그의 심장에 부당한 욕망으로 놓인 욕망. 그는 또한 그가 이 땅에 거주하는 한 조기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극복된다.

그러나 사탄이 승리하는 곳에서는 가장 큰 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있다면, 그일은 약점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과도한 중독과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내재된 능력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하는 영의 선물은 구속의 의미에서 구속되어야 할 활동이어야 한다. 영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 죄를 용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나 사탄이 이미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쓰러 뜨리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확실히

존중하지만 그 곁에 서시고 분명히 경고한다. 그는 그의 사랑이 무한 하기 때문에 그의 새로
워진 배도를 막기 위해 돌을 던지지 않는다.

아멘

영에 대항하는 죄.

B.D. No. 7725

1960년 10월 14일

너희는 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를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영을 대적하
면, 너희가 내 역사를 깨닫고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를 멀리하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나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나 자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의 역사는 내 사랑의 비추임의 증
거이다.

너희가 이를 거부하면, 너희는 영을 대항해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전에 지었던,
내가 너희에게 볼 수 있는 내 임재의 증거를 준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를 새롭게 범하기
때문이다. 이 죄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을 거부하면, 너희는 너
희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새롭게 가야
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을 대적해 죄를 짓지 말라. 내 역사를 인정하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내 아버지의 영이 자신
을 나타냄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영이 영에게 말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거부한다.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을
거슬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을 안다.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고 이 음성이
울릴 때에 심장과 귀를 닫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았을지
라도 자신의 거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그로 하여금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대적하는 영이 그
를 지배하기 때문이고 이 영이 그로 하여금 거부하게 이끌고 그가 이 영에게 순종하기 때문이
다. 영의 음성을 깨닫는 일은 내가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선물을 활용해
야 한다.

왜냐면 영의 음성이 사람의 신장의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자신을 지나치게 한다. 왜냐면
이 역사가 그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쉬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아
버지의 영을 향해 추구한다. 그러나 내 영의 역사를 두고 비록 이에 관한 깨달음이 있을 지라
도 저속한 동기로 싸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한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해 죄를 짓는다. 이 죄는 한때 지
은 죄보다 몇배로 크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
게 이를 경고하고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내 영이
역사하는지 언제 역사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내 영을 고백해야 한다. 너희가 멸망을 받고 다시 나와 연결될 때까지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이 필요하게 되지 않게 너희는 영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아멘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B.D. No. 4510

1948년 12월 13일

사람들이 내 공의에 도전을 한다. 왜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성이 없고, 그들은 심장 안에 사랑이 없고, 전적으로 교만하고, 관능적인 정욕이 가득하고, 이웃을 향한 연민이 없고, 전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가장 최악의 행동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런 계명을 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나 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내 사랑을 잃는다. 그는 내가 그를 심판하기까지, 즉 그가 물질 안으로 다시 파문을 받기까지 나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강박하게 된다. 그러면 내 공의가 만족된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 것이고, 영원한 내 법칙은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이다. 이런 일은 실제 사람이 동시에 이런 일을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즉 피조물들을 향한 내 사랑이 베풀어지고, 절대로 분노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이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공의는 절대로 사랑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는 속죄를 요구한다. 이로써 죄 자체가 힘을 잃게 한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단지 공의한 속죄를 통해 이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 가운데 거한다. 즉 그는 고통이 충만한 묶임을 받은 상태에 거한다. 그는 댓가를 치러야만 하고, 그는 그가 인간으로 자원하여 행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섬겨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게 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섬긴다. 그러나 죄악과 부도덕은 사랑을 물리치고, 그가 섬겨야 하는 곳에서 다스리려고 시도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죄악되다. 인간의 단계에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는 다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에 의한 이런 성장과정은 단지 내 공의이고,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일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이로써 그가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사람이 항상 자유의지로 스스로 정한다.

아멘

보상해주는 공의. 죄와 속죄.

B.D. No. 4547

1949년 1월 24일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보상을 한다. 따라서 인류가 행한 처신은 실제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의 지혜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도덕적으로 성숙한 정도와 및 혼의 부족한 상태를 깨닫고,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 반대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인간 자신이 깊은 곳을 추구하고, 인간이 깊은 곳에서 아직 유익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가 항상 더욱 증가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점점 더 많이 죄값을 치르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고, 저세상에서 자주 견딜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한다.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가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하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죄는 속죄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세주를 통한 속죄는 사람이 완전히 구세주께 항복하고, 그의 계명에 따라 삶을 살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죄 사함을 보장하는 개선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은 피할 수 없게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스스로 죄를 속죄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 속에 깊숙이 빠져 있고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나타나고, 불의 위에 불의를 낳는 고난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죄를 깨닫고 혐오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빛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고통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보응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와 사탄의 역사가 자유롭게 행사되도록 허용이 되어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본능을 나타내고, 각 개인의 의지가 선한 결정을 하거나 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또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거나 경멸하기 위해 이를 볼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두움의 세력의 격노가 더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러므로 의인을 향한 맹공격이 또한 일어난다. 의인은 인간 형체를 한 악마를 놀라면서 물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고,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심판. 구속사역.

B.D. No. 8062

1961년 12월 13일

나는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내 사랑은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항상 영원히 속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으로 옳지 못한 것을 좋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너희를 내 사랑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희 죄를 벌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죄를 통해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너희 자신을 위해 불러 일으킨 것이다.

너희가 나와 거리를 둔 것이다. 이것은 항상 불행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를 더 이상 감쌀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죄를 통해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며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내 공의를 만족시키

기 위해 너희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속죄를 요구한다.

내 성품은 사랑과 긍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넘치는 인내심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 공의는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공의도 아주 온전한 내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이 너희에게 딱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항상 너희 자신이 원인이 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축복 되기 위해서는 다시 질서 안으로 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속죄의 역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잘못 방향 된 사람의 의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의 상태는 즉 죄의 결과이다. 죄를 속죄하게 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나에게 가까이 가게해주는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 사랑으로 축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상태를 내가 허용한 것이다.

이런 심판은 항상 단지 교육수단이다. 너희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는 내 분노의 증거이거나 표현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분노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내 공의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의 결과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심판을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모든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너희 자신이 이 심판을 너희를 위한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커서 모든 죄인을 영접한다.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에게 너희 죄를 드리면, 더 이상 너희에게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항상 나와 간격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영접할 수 없는 내 공의의 증거인 형벌의 형태로 너희를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죄에 대한 대가이다. 너희는 속죄를 한다. 너희가 죄를 상쇄해 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는 십자가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 모두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다시 영접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내 사랑을 선물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공의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죄책감. 하나님의 긍휼. 보상.

B.D. No. 3278

1944년 10월 4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축적된 죄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단지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인간이 그의 죄를 때문에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갖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원래 초기에 자신을 생성되게 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가 이 땅의 사람들을 묶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막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죄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미 벗어났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린다.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인류는 모든 죄짐을 지고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어두운 밤에 있었고, 사랑이 없었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심연에 빠질, 즉 지식이 없이 그리고 사랑이 없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낮은 곳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과의 간격은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고,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었고, 가장 명백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삶이었고, 그런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대인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삶은 절대로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사후에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할 수 없고, 영적인 죽음이 그의 결과이다.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저세상에서의 극심한 고통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고, 인간의 죄짐이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져, 존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간격은 존재에게 힘이 없음과 무기력함과 어두움과 결국에는 자신의 입자가 굳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존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소멸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가 소멸되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존재의 고통은 모든 개념을 초월하게 견딜 수 없고 끝이 없다. 영원한 신성이 이런 존재에게 긍휼을 베풀어, 영원한 사랑이 사람 안에 육신을 입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기 위해, 그들이 단지 죄가 없이 전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죄짐으로부터 구원했고,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졌고, 이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영원한 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원한 신성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 공의로운 댓

가를 치르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죄짐을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죄짐으로부터 구원했고,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1944년 10월 4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에 접근하는 일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였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들의 힘과 의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이 바닥에 누워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일은 죄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죄짐이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짐을 그들에게서 넘겨받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짐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인류는 이제 그의 희생제사를 영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경멸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이 실제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뜻과는 반대로 절대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소원이 없다면, 그들을 구속사역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죄짐이 모든 무게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러면 그들은 불가피하게 심연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무지 가운데 영원에 영원한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그들의 죄짐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이 죄짐에 더하여 많은 이 땅의 죄를 첨가할 것이고, 그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들의 죄에 긍휼을 베풀어 그들에게 구세주를 보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구속사역의 은혜가 이제 그에게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의 의지력과 힘이 증가할 것이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B.D. No. 3335

1944년 11월 19일

구속 역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고, 그는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느낀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혼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의 싸움에서 대적자에게 시험받거나 또는 잠시 대적자에게 눌린다면, 항상 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항상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이 죄를 짓고 깊이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항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 왜냐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의 은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죄는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룬 분에게 전가된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와 연결된 사람만이 항상 잔지 이를 이해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믿음을 통해 자신을 그와 연결시킨 사람만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위험은 아주 크고,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왜냐면 인류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에게 피하지 않고, 자신이 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짐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죄짐은 상쇄될 수 없고, 항상 커지고,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짓누른다. 이 짐은 너무 커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이 이 짐으로 기절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자신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짐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물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면 그는 가장 순결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죄도 없었고, 그러므로 그의 제물은 인류의 모든 죄를 보상했다.

그러나 그의 속죄 제물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들이 속죄의 제물로 얻은 은혜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사람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다시 끌어 올린다. 죄는 혼의 죽음이다. 그러나 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는 죄로 인해 잃었던 영생을 다시 찾는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죄사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신음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순수한 삶을 살지라도, 그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살게 된 총괄적인 원인인 전에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남아 있다.

이 죄 때문에 그의 의지가 연약해져, 그를 죄짓게 만들려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에 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처한 깊은 위험과 연약한 의지를 알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다. 왜냐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은 항상 구속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8778

1964년 3월 13일

나는 선한 공의의 하나님이고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는 최고로 온전해 어떤 악한 것이나 영원한 질서의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공의 때문에 이런 일들은 속죄를 해야만 한다. 내가 언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런 속죄를 요구할지는 나와 내 지혜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아주 작은 죄라도 자신 안에 가지고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전에 그는 속죄를 해야만 한다. 이 속죄는 저세상에서 아주 쓰게 그에게 부담을 주며 그의 죄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를 모든 축복된 느낌에 오랫동안 제외가 된다.

너희는 실제로 어떤 사람도 죄짐이 없는 상태로 이 땅의 육신을 떠날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세어 본다면, 그가 저세상에서 너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 등을 통해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이런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여기에 더욱 큰 죄짐이 관련되어 있다. 이 죄짐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써 이 죄는 속죄를 해야만 한다. 존재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를 속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죄를 위해 인간 예수가 한번 죽어서 이런 원죄 때문에 혼들에게 닫혀져 있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즉 구속사역이 없이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축복된 문이 비로소 열릴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다. 그는 모든 죄짐을 자기에게 짊어지고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렀다. 이로써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다가가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이제 그를 전적인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죄를 위해 그의 피가 흘려졌기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써 이를 영접하면, 그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만이 인간의 혼이 죽은 후에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들어 갈 수 없게 막았던 죄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영의 나라에서 자유의지로 불행한 혼들의 구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하여 섬기게 된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동인이 되어 일할 자세가 되어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사함을 받은 죄를 아직 불행한 혼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행하면서 동시에 이 혼들을 예수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해 예수에게 인도하려고 하면서 보답해 나간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모든 혼들이 죄를 위해 공의로운 속죄를 이룬 십자가 아래 그들의 죄를 내려 놓는다면, 이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이전에는 빛의 나라에 축복을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삶 자체도 영원한 사랑인 나를 대항해 죄를 짓지 않고 마칠 수 없었다.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다. 내 공의는 죄에 대응하는 보응을 요구한다. 이런 보응을 그들이 실제 스스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원죄가 그들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임한 빛의 존재들이 즉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이웃들을 영접하고 이웃에게 이 땅에서의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내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이게 했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선한 것에 대적해 선동하기 위해 자신의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악 된 세대가 되었고 그들의 죄짐은 증가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 이를 영접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그에게는 빛의 나라가 닫혀 있다. 왜냐하면 내 공의를 무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속죄하지 않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끝없는 사랑이 인간 예수가 완성한 대신해 속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공의대신에 긍휼을 입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지불했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죄를 사하는 데는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요청이 한때 타락했던 큰 죄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거절할 수 없이 필요하다. 그러면 혼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는 그곳에는 스스로 이제 지치지 않고 내 의지를 따라 일을 하며 혼들이 구원을 얻게 예수에게 인도하면서 다시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아멘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B.D. No. 6242

1955년 4월 21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죄에 대해 그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일과 모든 잘못 된 생각과 행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바로 이 효력들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고 이를 고통으로 형벌로 느끼게 된다. 이런 형벌은 항상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죄 많은 삶을 살고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신적이고 순수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드는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할 필요가 없이 배설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은 죄를 죄 위에 쌓아 올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끔찍하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들의 삶과 행동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도록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아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을 끝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어두워진 영으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그의 이 땅의 삶에 대해 후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가 스스로 빛과 힘이 없고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나를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내 사랑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축복되다고 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사람들을 쉽게 해주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인도를 받기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잘못 된 행동을 하면, 그들은 그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절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만든 운명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끔찍한 고통을 알고 존재가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한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런 일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고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 자체이고 항상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축복되게 해주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경건하지 못한 갈망이 또한 경건하지 못한 운명과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과 가장 고통스러운 포로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자유가 없고 무기력한 상태이고 항상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존재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내 계명에 어긋나게 산 삶에 대한 형벌을 불러드린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짐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B.D. No. 6596

1956년 7월 16일

죄 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다. 사람이 죄짐을 육체적인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혼이 바닥에 쓰러져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저 차원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고 경건하지 못한 삶과 불신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굶주림과 전적인 물질적인 생각과 추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는 아직 속죄되지 않은 죄의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의 결과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의 혼은 아직 그들의 죄로 인해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짐에 의해 짓눌려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모든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대적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일로 드러나고 그들이 모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로 드러난다. 대적자는 항상 단지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밖에 묶어두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대적자가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참함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에게 그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허용하고 그의 말을 듣는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자신들을 그에게 넘겨준 죄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대적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분에 의해 큰 죄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한 분은 그들의 사슬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이런 큰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신을 믿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십자가 아래 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를 사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로써 그들의 혼은 원수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또한 그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처한 이런 상태가 큰 영적인 위협이다.

이 땅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성숙시키기 위해 섬겨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세상으로 임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를 해방자로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와 그의 사명과 그들의 구원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죄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 그들의 주인이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쉽게 막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이런 돕는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감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주고 모든 사람이 진실로 이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대적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우선은 단지 그들을 짓누르는 그들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

실로 이미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대신에 대적자의 영향력이 항상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지식을 오류로 인도하는 것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를 믿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의 역사를 끝나게 한다. 그러나 가장 깊게 타락한 사람들을 대적자와 분리시켜 새롭게 성장 과정을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할 수 없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새로운 성장 과정이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들은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머물고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더 이상 길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활동도 끝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혼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혼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인류의 타락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돕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세로 새 땅이 생성되게 하고 인간으로서 실패한 영적인 존재가 새 땅에서 다시 이런 공의한 질서 안에서 거하게 한다.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까지 성장 과정을 다시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모든 존재가 가진 죄짐을 해결할 수 있고 그가 단지 존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존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 죄에 대한 형벌과 은혜의 역사.

B.D. No. 3321

1944년 11월 8일

종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그들의 무기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실한 소수를 제외하고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죽은 후에도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고, 영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본 것을 믿고 자신들이 보는 것의 멸망을 본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너무 높게 평가했고, 이제 그들에게 이 삶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의 혼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끔찍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혼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고, 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므로 그들의 혼이 부족하게 성장한 가운데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침착하게 종말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 후의 삶도 또한 그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 후의 삶이 그에게는 실제적인 삶이고,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의 빛을 어두움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연합하여 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보이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 시간을 갈망하고, 침착하게 이 땅에서 부름 받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 앞서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를 통해 저항할 힘을 얻는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분노하다. 사람들의 잔인함이 서로를 능가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대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을 향해 빠르게 가기 때문이다. 땅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불길이 붙잡는 모든 것을 삼킨다. 사람들은 눈 앞에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본다. 그러나 그들의 비참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향한 박해의 시기에 그들 자신이 지은 죄의 분량을 능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분량이 넘쳐 단지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른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죄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압도적으로 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에게 축복이 압도적으로 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위험이 오랫동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나게 될 과정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처벌하고, 사탄 자신과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묶임을 받는다. 이때에 이 땅은 살아 있는 마귀들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전적으로 그들의 권세자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랐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고, 이런 일은 완전한 무기력함과 가장 심한 포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포로상태는 한때 힘이 충만하고 자유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던 영적인 존재에게 상상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의식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추방되는 역사는 또한 이런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 위한,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나 죄짐의 크기가 또한 고통의 정도를 정한다. 이런 고통은 실제 형벌이자 죄에 대한 속죄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사람들에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심한 이런 수단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인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를 퇴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퇴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사건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지나 가게 한다.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래를 향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싸우는 자에게 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와 같게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파문을 받는 일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전적인 파문은 항상 가장 큰 고통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일이 존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는 존재의 원래의 상태와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존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한다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고통을 체험해봐야만 한다. 이로써 존재가 자신의 뜻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한다.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주 대적하여,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굳은 물질 안에 머무르는 일이 끝없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의 강박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알고,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를 느슨하게 한다.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순복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가 느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영적인 존재는 이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결정이 완전한 자유 의지로 내려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은 단지 비록 사람들이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지은 죄의 분량에 대한 심한 속죄와 연결되어 있지만, 단지 영적인 존재를 다시 얻기 위한 역사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하는 일이, 즉 의지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중단시킨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은 후에 인류의 번식을 위해 이 전에 소수의 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육체로 들어 올려, 그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리하는 일이 종말이고,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일이 종말이다. 선한 자는 새 땅에서 낙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악한 자는 끝없이 긴 기간 동안 투옥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는다.

아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영적인 위험.

B.D. No. 4900

1950년 5월 20일

이 때가 극도로 혼란한 때이고, 가장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때이고, 사람들 사이의 상태가 되어야 할 상태와 아주 다른 상태에 있다. 사람들은 단지 물질과 연결되어 있고, 그에 합당하게 산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이 땅의 소유물만 얻을 수 있다면, 내 계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아래에서 오는 충동의 지배를 받고, 더 이상 위를 추구하지 않고, 더 많이 지하 세계의 세력에게 향하고, 이런 세력들로부터 세상을 향한 갈망과 정욕을 충족시킨다.

영적인 위험이 크고, 아주 커서 사람들이 더 깊이 타락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강력하게 영적인 위험을 물리쳐야만 한다. 이런 일이 임박한 이 땅의 멸망의 진정한 원인이고, 현재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현재의 자신의 형체를 벗고 더 이상 타락이 일어날 수 없고 성장해야만 하는 새로운 곁형체를 받게 하는 원인이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이자 동시에 심판의 역사이고, 영의 상태가 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러나 종말을 또한 구원의 역사로 볼 수 있고,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이다. 왜냐면 굳은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일은 고통스러운 상태이고, 내가 모든 사람이 다시 창조 전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직 자유로운 존재가 다시 묶임을 받고, 힘이 충만한 존재가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의무의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존재가 다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다시 올라갈 때까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존재 주위에 어두움이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파문은 이 땅에서 아직 자유롭게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불쌍한 상태를 안다면, 그들은 진실로 두려움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강제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1950년 5월 21일) 사람들은 각자의 의지로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들은 실제 훈계와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예언의 형태로 제공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고, 자연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어떤 강력한 일이다. 이 일은 단지 나의 영에 의해 깨어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이고, 이로써 그들의 혼을 해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인류는 그들의 공포 가운데 이성적으로 받은 인상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그들의 영적이고 세사적인 운명인 눈 앞의 죽음을 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가장 큰 대조를 보여준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땅으로 재림한 일을 대해 최고의 행복과 환호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빛나는 빛을 보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공포와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부인할 수 없게 전적으로 멸망을 받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맞이 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아직 너희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고, 너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선물이 전달된다.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은혜의 선물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모든 측면에서 특별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통해 너희에게 종말을 알려준다. 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를 계시한다. 이로써 너희가 계시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 혼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나는 계속하여 너희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너희를 향해 손을 펼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보장한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계시에 주의를 기울이라. 모든 일이 성취되는 때가 피할 수 없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대로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종말이 그들에게 환희와 축복의 날이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속하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B.D. No. 8296

1962년 10월 11일

잘못 된 생각이 너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못 된 생각이 다시 많은 잘못 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수한 진리 때문에 설명을 갈망을 하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 공의를 믿어야 하면, 너희는 나를 불의하게 벌을 주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가르치는 나에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의 죄를 4대에 걸쳐서 벌하리라”는 말을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런 잘못 된 관점을 너희에게 가르쳐 왔다.

내가 공홀이 없어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자녀까지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영접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까지 아버지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죄는 단지 특정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죄악 된 아버지의 삶으로 인한 연약함과 신체적인 장애, 혼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나타나는 효과는 이웃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연약함과 장애를 내 편에서 주는 벌로 여기고 있다.

죄악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도 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과 구속을 구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 자녀는 바로 힘든 운명을 통해 빠르게 혼의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이 땅의 과정을 의식하며 스스로 짊어진 혼들이다.

왜냐면 이 전에 혼들에게 이런 운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항상 단지 혼의 성장에 관한 일이고 인간으로써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크게 또는 적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보다 빠르게 완성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사는 삶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근거한 어려운 운명을 맞이하면, 항상 불공정한 것으로 원망한다.

귀환의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불행한 상태를 내가 사랑이 없고 불의 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이던 영적인 것이던, 법칙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나타나지 않게 그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항상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공의가 사람들에게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지나치게 큰 짐을 가지고 저세상에 들어가지 않게 짐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석을 찾지 못했으면, 이 땅의 삶에서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책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한걸음 성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범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저세상에서 무능력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그의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을 혼들이 자주 자신과 같은 성향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과 연결 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돕기 위해 혼들이 의식적으로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짊어진다.

아버지의 죄가 4 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은 내 영원한 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것이 자연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다시 다른 혼들에게 그들이 높은 곳을 향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는 혼이 다시 새롭게 육신을 입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의지인 것처럼 사람들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내 편에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혼에게 닥치던지 간에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던지 간에 혼에게 단지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혼들은 그들 스스로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했으면 그의 고난은 줄어들고 그의 이 땅의 운명은 쉽고 견딜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항상 단지 내 불의로 보기를 원하면,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한 너희의 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너희가 항상 단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단지 짧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희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 많은 보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많은 불의의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죄의 결과는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일은 모든 죄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다시 죄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정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끌어드린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결과가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이전 세대가 지은 죄짐을 견뎌야만 한다.

이런 일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숙하기 위해 특히 어려운 삶의 조건이 필요한 혼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을 위해 특히 어려운 생활 조건을 선택한 혼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드리지 않은 고난을 견디고 이런 고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혼과 영적으로 접촉한다. 저세상에서 이 죄짐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저세상에 까지 따라온 이런 죄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혼은 죄짐을 감당하는 혼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자녀와 손자의 속죄를 받아드린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같은 운명을 겪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항상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그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자신이 초래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자손을 구한다. 그러나 그가 이 죄짐을 가지고 저세상으로 간다면, 저 세상에서 그는 이 땅에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 영향을 미쳐 그가 한때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만들기 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 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와 손자들이 죄의 크기를 과소 평가한다면, 사람들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아들이게 한다. 저세상의 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볼 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따라서 그 죄는 두배로 속죄가 되고, 그에 따라 더 빨리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안다면, 형벌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형벌이 그에게 의로워 보이고 그의 혼이 이 땅에서 더 빨리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으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후회하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아주 쉽게 된다. 그러면 그의 죄의 결과도 사라질 것이고, 그는 그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갚아야만 하게 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집착. 조상들의 죄짐.

B.D. No. 6691

1956년 11월 17일

 든 사람은 나에게 의해 자신의 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보장하는 은사를 받았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타고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 안의 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받는 성숙한 정도에 있다. 그러나 이제 깊은 곳에서 온 세력들이 사람의 몸을 차지할 수 있고 사람이 내 계명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하면, 이를 외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실제 이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혼이 이런 세력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세력들은 혼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그들의 악한 성품을 실행한다.

내가 이런 일을 허용하는 데는 지혜로운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세력들이 혼을 점령할 수 없도록 혼을 돕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인해 발생하는 조용한 고통을 통해 혼이 성장하고 혼의 정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가기에 무르익은 가장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믿을지라도 이런 혼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하지 못한 채로 머물지 않게 된다.

종말의 때에 지옥은 모든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악한 영들은 이제 자신이 태어나게 하지 않고 연약한 몸을 소유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찾는다. 그러면 자주 당한 사람 자신은 선명한 이성이 없고 전혀 책임감이 없고 그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자신을 의식하는 혼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나 혼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 방해 받고 악한 영들은 그들의 주인의 사명을 받아 날뛴다.

이런 사람들의 혼은 아주 특별하게 힘든 이 땅의 과정을 겪는다. 그런 일에 대한 이유는 가장 다양하다. 그러나 혼들은 영적인 보호를 받고 억압자 앞에 혼들의 무기력과 혼들에게 고통스러운 두려움이 평범한 이 땅의 과정보다 혼의 정화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런 세력들이 인간의 몸을 벌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은 자주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내 대적자의 영향을 너무 자원하여 받도록 허용하고 큰 속죄를 요구하는 일을 행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직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런 죄짐을 짊어진다. 그러나 후손들의 혼은 그들 안에 같은 악한 본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약해진 몸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악한 영들이 그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방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조상들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혼에게 육체적 고난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혼이 악한 영들을 통해 절대로 해를 입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을 희생했고 이런 희생을 통해 혼은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저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도와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산하는 때의 심판. 보응.

B.D. No. 6103

1954년 11월 9일

노은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젊은이거나 노인이거나 너희 **모**두가 언젠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너희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오고 이제 너희의 혼의 상태와 혼의 계속되는 운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죽음 후 혼이 사는 일을 의심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지라도 너희는 또한 이런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끔찍하게 놀라는 가운데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죽음 후에 계속 사는 일을 부인한 사람들 중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들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은 곧 그들의 영적인 위험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며 돕는 존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고 사랑을 적게 행한 사람은 심판의 시간이 쓰라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기다리는 운명이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힘이 없고 빛이 없고 무기력한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어두움 속에서 생존하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존엄한 위치에 있었을 지라도 이에 상관이 없이 어떤 혼도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영적 옷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육체를 돌 보았지만 혼은 돌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벌거 벗은 상태로 가난하게 저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저세상의 나라에서 그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걸형체를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렵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혼들이 걸형체를 만들려는 의지를 가질 때까지 자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혼이 스스로 변화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자주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가가고 있는 자신들의 마지막과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직면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죽음 후에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적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던 모든 힘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땅에서 혼을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저세상의 영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은 주는 일이고 돕기를 원하는 일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혼은 아주 가난하게 도착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혼 자신이 불행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없고 자신이 가난하고 비참하여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린대로 언젠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공로에 따라 받게 된다. 모든 혼은 자신이 이 땅의 과정을 통해 만든 운명을 받아드려야만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때가 오고 모든 혼에게 자신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아멘

큰 죄짐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다. 파문.

B.D. No. 3307

1944년 10월 26일

인류가 스스로 짊어진 죄짐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일을 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사람은 죄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움이나 사랑 없음을 나타내는 곳에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악한 행동을 통해 죄짐을 증가시킨다. 그가 그런 행동을 혐오하지 않고 동의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신이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짊어져야만 한다.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 저세상에서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단지 짧고, 저세상에서 성장하는 일은 특정한 성장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날마다 매시간마다 새롭게 사랑 없는 행동을 하는 정도로 자신의 죄를 지시는 사람은 이런 성장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만 한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죽음은 단지 곁형체의 변화를 의미 할 뿐이다. 그들의 혼은 다른 곁형체를 받게 되고, 단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한다. 왜냐면 그들의 과도한 죄로 인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해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죄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영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들이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유를 다시 추구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을 만드는 역사는, 비록 혼에게 다시 새롭게 의지의 자유가 주어지기 까지 끝없이 긴 기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상태에서 동시에 더 높은 성장을 의미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는다. 반면에 저세상의 영의 나라에서는 존재에게 어떤 힘도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그의 활동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마비된다. 따라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잔인한 역사도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통해 한 때의 지은 죄를 여러 배로 증가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의 사랑의 역사이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죄 위에 죄를 쌓고, 그의 결과는 끔찍하다. 왜냐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드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속죄해야만 하고, 모든 결과를 받아드려야만 하고,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

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자유의지가 주어질 때까지 창조물 전체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만 한다.

아멘

저 세상의 죄짐. 속죄 또는 용서.

B.D. No. 3909

1946년 10월 20일

너희가 너희의 이웃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는, 이로써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을 준 나 자신에 대해 지은 모든 죄는 너희에게 짐이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죄짐을 지지 않았다면, 너희는 저 세상에서 너희 죄짐을 어렵게 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웃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너희에게 자신을 즉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자가 없다고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 이웃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양심을 무더지게 한다. 그럴지라도 이를 통해 너희의 죄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이성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너희 이성은 실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안다.

너희 의지는 너희가 생각하고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가 죄 위에 죄를 지으면, 너희가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를 괴롭히고, 그의 위험 가운데 그를 도우면서, 유일하게 나의 눈이 마음에 들어 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그에게 행하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사랑이 없이 이웃을 대하면, 말할 수 없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다. 사탄은 이제 너희 혼을 너희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의 자원함에 대한 보수로써, 단지 일시적으로 너희의 삶의 형편이 나아 지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너희 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희의 죄가 차서 넘치게 하지 말라. 왜냐면 언젠가 끔찍하게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그에게 선을 향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선하게 되기 위해 의지를 모으라. 그러면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의 늪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용서받고, 나의 눈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그의 공의를 부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 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 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고난을 줄여 줘라. 그러면 너희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이웃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곧 닥치게 될 심판의 날에 너희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죄 짐이 너희를 바닥으로 짓누르지 않도록, 너희가 심판의 날에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왜냐면 내가 모든 불의를 알기 때문이다. 나의 눈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너희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의 죄가 들어 날 때에 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나의 공의를 자신에게서 느끼게 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속죄는 가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에 합당할 것이다. 비록 나의 인내와 긍휼이 끝없을 지라도, 나는 공의로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에 제한이 정해져 있다. 너희가 이 제한을 넘어서면, 말씀과 기록에 선포된 대로, 모든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아멘

저세상의 혼의 후회.

B.D. No. 4081

1947년 7월 10일

자신의 형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스스로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의식이 저세상의 혼에게 아주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혼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갈망을 느낄 때, 비로소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 그 전에는 혼은 냉담하고, 위를 향한 추구를 하지 않고 또한 아래를 향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 혼이 변장한 채로 혼에게 다가가는 빛의 존재의 도움을 통해 다른 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믿음으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려는 충동이 혼 안에서 깨어날 때까지, 혼은 단지 비할 데 없는 고통을 느끼고, 전적으로 의지가 없다.

혼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을 보충해야만 하고, 혼이 사랑으로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 혼에게 분명해진다. 혼은 이제 또한 이 땅의 자신의 헛된 삶을 깨닫고, 활용하지 않은 많은 기회를 대한 아주 깊은 후회를 한다. 혼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혼은 곧 개선되는 일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혼이 후회를 느끼면, 혼은 고통 당하는 혼에게 사랑을 행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강박해진 혼은 더 타락하게 되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혼은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자신의 불의를 절대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후회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혼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비로소 혼이 위를 향하려는 추구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혼에게 성장을 위한 힘이 제공되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게 되는 일은 항상 너희처럼 고통스러운 상태를 견뎌야 하는 혼들을 향한 연민의 결과이고, 이런 충동이 이미 혼에게 빛의 존재들의 도움이 제공되게 하고,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고, 들어서기까지 이런 도움이 줄어들지 않는다. 혼의 깨달음이 증가할수록, 혼은 더욱 열심히 저세상에서 사랑을 행하고, 자신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돕는다. 왜냐면 혼이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 고통을 줄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제 자신의 후회를 줄인다. 그러나 혼은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비록 혼이 이 땅에서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혼이 이제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섬길 수 있다는 의식 가운데 축복되게 된다.

아멘

마지막 날에 죄가 드러날 것이다. 죽은 사람들도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혼들이 이 땅의 삶에서 행한 모든 악한 역사와 모든 악한 생각과 의지가 마치 불로 지져 기록한 것처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이 빛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에 순종했을 때 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1950년 5월 3일)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의 처신이 악했던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 받지 못한 동안에는, 즉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용서를 받지 못한 동안에는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진실로 아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왜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단순한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영적인 위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단지 공허한 말을 한다.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일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무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면, 다시 말해 한때 일어난 어떤 일도 비밀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혼이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만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짐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이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저세상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높은 곳에도 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저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그들에게 내려갈 때, 구세주의 구원하는 손을 잡는다.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죄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사슬로 묶는 것처럼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 두기 때문이다. 단지 한 분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눈이 먼 가운데 이런 한 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영들을 구별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공홀히 여기는 아버지의 손이 죄인에게 향할 것이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끌어 올리게 하는 사람은 새롭게 새 땅의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의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마지막 심판 후에 혼들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홀의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
하리라.

B.D. No. 6220

1955년 3월 27일

내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왜냐면 모든 원인에 그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 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영원한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고 어떻게든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고 항상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는 영원한 내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악은 항상 단지 악을 낳고 어떤 악한 행동도 결과가 없게 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고 절대로 영의 나라에서 자유한 가운데 축복되게 살 수 없다. 왜냐면 죄는 너희 혼에게 짐이고 악한 결과가 항상 혼에게 공의로운 보상을 하도록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죄는 단순히 축복된 자유를 의식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혼이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적으로 회복해만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내가 벌을 주는 일이 아니고 단순한 법이다. 왜냐면 내 나라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고 있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존재가 단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으로 가장 작은 사랑없음도 제거하고 이제 전적으로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으로 모든 죄를 능가하게 된 존재가 단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았고 여러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존재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면 존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의 길을 갔고 그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고 아직 그의 사랑을 확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없음을 통해 죄짐을 높이 쌓아 존재가 이 땅의 삶 동안에 자신을 사랑으로 바꿀지라도 이 땅의 삶의 기간으로는 이런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공의는 존재의 죄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호리라도 죄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내 나라의 축복을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은 혼을 위해 드러지는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랑으로 드러진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내 공의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인간 예수의 사랑과 공홀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체해 있는지를 깨달았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영의 나라로 들어가면, 영의 나라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 예수는 또한 내 공의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짐을 단순히 탕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렸다. 자유한 상태가 비로소 영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자신의 빛을 갠달라고 구하고 구속 역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 예수는 가장 작은 빛까지 갠었다.

이런 인간 예수의 구속 사역이 없이는 내 나라에 축복된 존재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신과 하나님과 분리로 깨닫고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는 나를 향한 그의 의지의 결과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구속 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1955년 3월 27일)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일이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나에게 구한다. 그의 죄는 보응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빛의 나라에서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이제 다시 그의 과제가 된다.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혼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일은 자주 힘이 들고 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혼의 사랑이 혼에게 힘을 주고 혼은 이 힘을 사용하여 나와 내 나라를 섬긴다. 혼은 나를 섬기고 혼이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내가 실제 용서해 준 죄에 대한 즉 없애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런 보상을 자원하여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런 보상을 나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은 영의 나라에서 아직 타락한 혼들을 나에게 데려오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더 이상 죄책감에서 행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한 가운데 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내 종일 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사소한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창조한 모든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영의 나라 주민들의 축복을 위해 일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심연 속에서 고통당하는 혼들은 아직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죄짐을 부분적으로 속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통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그들의 죄짐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를 행한 분에게 그들의 죄를 넘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깊은 곳에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더 큰 빛이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 나를 부르는 일로 나는 만족한다. 그들은 이제 빛의 영역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그들의 구원하는 일을 통해 이제 다시 그들의 많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

스도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간수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비로소 구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원하여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상쇄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된 일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그들이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일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거하는 혼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되고 축복되도록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죄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를 위해 모든 죄는 속죄를 받아야만 하고 이런 속죄의 역사를 예수가 완성했고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아멘

저세상에 있는 혼들의 고통이 가득한 운명.

B.D. No. 8224

1962년 7월 26일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게 되고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죽는다면, 소멸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혼은 그를 떠나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합당한 상태에 영의 나라에서 계속 살기 때문이다. 혼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된 상태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혼은 이제 전적인 자유 가운데 그의 의지에 따라 혼이 전적으로 내 의지에 복종했기 때문에 내 의지에 따라 빛과 능력 안에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저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는 이를 실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적인 소멸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였는지 이제는 무기력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통이다. 혼이 계속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혼에게 고통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 고통이 혼이 이런 죽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저세상에서 혼에게 다가오는 돕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혼에게 이미 작은 개선을 주는 돕는 자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이 다른 불행한 혼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혼은 항상 단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부족하고 항상 자기 사랑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을 통해 혼은 저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다.

혼은 자신이 능력으로 느끼는 사랑으로 드러진 중보 기도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혼이 자신의 의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혼 스스로 저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가지면서 자신 안에서 사랑을 일깨워야만 한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혼들은 주어진 도움을 능력의 제공으로 느끼게 되고 그들을 유일하게 자신들의 고통이 가득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라는 의지에 자극을 받고 된다.

혼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의식하고 개선되길 원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혼 안에서 자신의 죽음

의 상태를 바꾸려는 소원이 살아나면, 자신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음을 그럴지라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혼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이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의지가 이미 그를 돕는 빛의 존재로 하여금 혼이 이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변장을 한 가운데 혼에게 다가오게 한다.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들 편에서 해주는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로써 그들은 저세상에서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의 형편을 낮게 하려고 추구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혼들을 위한 모든 기도는 혼들에게 능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고 혼이 단지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왔다면, 절대로 이런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런 혼들이 죽음을 극복하게 혼들이 저세상에서 다시 생명에 이르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혼들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자신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혼은 자신의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단지 혼이 자신의 구속을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혼이 아주 깊이 타락하여 어떠한 빛의 불씨도 더 이상 혼에게 도달할 수 없으면, 혼은 항상 또다시 더 깊은 곳을 추구하게 되고 다시 굳어지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분해가 되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잃는 것이다.

이는 다시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것을 새로운 구속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영원히 죽음 가운데 남지 않고 다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언젠가 확실하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파문을 갈 필요가 없는 혼들을 얻기 위해 저세상에서 싸우고 있다.

혼들은 사랑 안에서 이런 혼들을 생각하고 구속역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밤에서 낮의 빛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것은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 된 존재들이 자유와 빛과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영원히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다.

아멘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B.D. No. 7910

1961년 6월 4일

너희가 나를 심장 안에 모시면, 너희가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긍휼을 알지 못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인해 영원히 너희를 저주한다고 믿지 말라.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빠져 들어갔던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를 통해 불행한 상태를 했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되게 될 수 있게 항상 또 다시 도울 것이다.

너희 자신이 악을 원했고 악을 너희에게 끌어들었다. 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상태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추구했고 행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고 그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에게 다시 축복된 운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를 위해 비록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할 지라도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무거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초기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연결된 가운데 넘치게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운명에 맡겨 두거나 너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저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 내 사랑과 긍휼로 너희의 죄를 위한 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반론한다. 내가 한때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면, 내 구속사역은 실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과 긍휼을 증거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희의 죄짐을 위해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이미 영원히 심판한다는 가르침이 잘못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반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증명한다.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와 내 성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나와 내 성품은 사랑이고 내 피조물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빠졌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에 그들이 빠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다시 얻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이 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내 긍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나로부터 더 멀어 떨어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불행하다. 만약에 그가 나 자신에게 의뢰하면, 그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며 이 사역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면, 그가 스스로 멸망 받는 운명을 끝낼 수 있는 멸망 받는 운명을 택한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돕기 원하는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갈망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 주려고 서있는 단지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녀가 돌아오게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할 때까지는 그의 운명은 축복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온전한 성품에 속한 공의가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제공 수 없다. 너희는 내 구속을 통한 너희의 죄의 속죄를 먼저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린 사람들 무리에 너희가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더 이상 분노하는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향한 내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속죄한 그가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고 그의 사랑의 힘을 너희에게 비추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

불행하게 된 것은 단지 자유의지의 책임이다.

B.D. No. 8671

1963년 11월 12일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없는 불행한 상태 가운데 영원에 영원히 나와 떨어져서 거할 수는 있다. 너희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너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는 확실하게 나에게 게로 돌아온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단지 한 존재라도 내 대적자에게 맡겨두려고 하면, 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대적자의 주이고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들의 주이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은 마찬가지로 나에게 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교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왜냐면 이는 내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복수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린다. 너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내 대적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너희는 단지 내 피조물이고 그의 가장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멸시키지 않고 언젠가는 그를 깊은 곳으로부터 나에게 다시 끌어 올릴 내 대적자를 그의 권세로 흔들을 나로부터 전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나와 같은 수준으로 여긴다.

너희는 잘못 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너희를 다시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불행과 모든 축복되지 못한 것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나로부터 주어진 형벌로 여겨서는 안 되고 너희 스스로 이 땅에서 범한 죄로 인한 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될 수 있는 원죄에 의한 너희의 죄악성 때문에 이런 모든 상태를 만든 것으로 여겨야 한다.

피조물들이 견디어 내야만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불행한 것들은 스스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각자 스스로 그의 한때 또는 현재에 지은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다.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고 너희 스스로 만든 너희의 비참한 상태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일어나게 하는 나에게 어떤 존재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불행한 기간을 정한다. 왜냐면 나에게 의해서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서 너희의 불행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고난의 상태를 늘릴 수 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의지라면 너희는 영원히 이런 상태가운데 거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를 주님으로 선택할지 내 사랑으로 너희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해주려는 나를 선택할지 너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내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면 사랑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되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지혜가 어떤 길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지 올바른 수단을 알고 내 사랑이 이를 적용시켜서 언젠가는 올바른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과 불행을 구별할 수 있다. 너희는 불행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 너희의 의지가 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운명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운명을 지어줬다고 절대로 말할 수 가 없다. 왜냐면 이 운명은 단지 너희 스스로 만든 것이며 너희 스스로 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지를 너희가 대적자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단지 어느 기간 동안만 묶어 두었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애를 쓰게 인간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가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게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희에게 달려있고 이제 너희가 영원히 영원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행한 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제 대적자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너희는 불행한 상태를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된 상태와 바꿀 수가 있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저야 하는 운명에 책임이 있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추구해야만 하는 올바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이 운명을 종료시킬 수 있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을 원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던 영원한 기간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영원히 나와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남을 것이다.

아멘

죄를 깨닫는 일. 의지의 행동.

B.D. No. 3280

1944년 10월 6일

의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의지도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고, 죄를 없애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기 전까지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랄 때, 사람은 비로소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깨달음이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그의 심장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가 사랑에 대항하여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깊이에 따라 그는 이런 죄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의 의지가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한다. 사람이 이 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즉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 방향으로 역사하게 하고, 그러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죄를 해결하는 일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항상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졌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죽음을 이기고 대적자의 권세를 무너 드렸고, 사람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극도로 강하게 했고, 자신의 사랑을 통해 구속 역사를 완성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자신의 역사를 인정하고 자신을 따를지를 정하게 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지가 일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의 축복과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사람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의 죄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이웃 사람과 그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행한 사랑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한다면, 셀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절대로 속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로 그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한 자신의 사랑의 희생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말할 수 없게 힘든 이 땅과 저세상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 않

있다면,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마지막 죄가 사함을 받을 때까지 저세상에서도 또한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는 일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간섭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에게 향할지, 하나님께 향할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향할지 정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B.D. No. 5181

1951년 7월 31일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힘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일은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대를 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불의를 깨닫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 죄이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면 옳고 그름을 알고 그가 잘못으로 인정한 일을 자유로 행해야만 한다.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위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단지 느낄 수 있는 깊은 회개를 요구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죄는 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용서받기 원하면, 죄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죄의 고백은 깊은 회개와 결합이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일은 단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인간이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사람이 죄로 정한 범죄는 실제 인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할 수 없다. 반대로 사랑의 계명과 모순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근본 법칙이고, 이런 근본법칙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상 이런 근본법칙을 표준으로 삼으라.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는 속죄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죄로 깨닫고 혐오해야만 하고, 사람이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어겼는 지, 언제 어겼는 지,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 지, 언제 지었는 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는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야만 하고, 그에게 그의 피로 인해 용서

해주기를 긴밀하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B.D. No. 9010

1965년 7월 7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너희가 이 죄로부터 속죄 받으려는 의지보다 먼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번은 너희가 한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인 너희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진지하게 소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이 죄를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너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당시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즉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너희의 죄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속죄 재물을 드린 것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한다. 이 것 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사랑이 너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과제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자신을 자신의 원초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만약에 그가 저세상에 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에게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빛에 감사하는 열린 심장과 귀를 가진 사람을 아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신에 안락함을 주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확실하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 만에게

구속사역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거의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강조되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부족한 단지 형식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을 주게 하는 의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속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적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함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에게 구속역사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귀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심장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며 큰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하게 권면하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큰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이 한 분 만이 큰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용서해주시기 위해 제한 없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큰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죄를 구속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식적으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B.D. No. 7239

1958년 12월 26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 노릇하는 데서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가 한때 나를 대항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너희 사람들에게 이 땅의 과정은 적은 성공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의 과정은 헛된 것이다. 사람은 단지 최선의 경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저세상에서 그를 인정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일이 그에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 계속되는 성장 과정이 막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의 땅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목표에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한번 이 땅에서 비록 그가 믿지 않고 이로써 구속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큰 축복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진 사람은 이로써 내가 거한 예수 안에서 최악 된 인류 때문에 이 땅의 과정을 간 나와 올바른 연결을 이루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은 그러면 단지 그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한다. 왜냐면 사람이 스스로 동인이 되어 다시 자신이 한 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의 원죄는 나를 떠나 타락한 것이고 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인 빛의 전달자의 추종자로서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다.

빛의 전달자는 교만 가운데 나에게 저항을 했고 내 의지대로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창조했던 영적인 존재들의 무리에 대한 지배자가 되길 원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수 안의 나에게 다시 향하고 이로써 나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형성시킨 사람은 이런 대적자와의 연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목적으로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사랑의 삶을 통해 깨달음의 빛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열어 주기 위해 너희를 타락하게 만들고 너희를 멸망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축복되기 위해 도망쳐야만 하는 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나에게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인간 예수의 사명을 깨닫는 일이 어렵고 믿기를 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에게 예수의 이 땅의 삶과 역사가 알려지면, 이는 축복된 일이다. 왜냐면 저세상에서도 내가 이런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할 수 있으면, 이는 축복된 일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의지는 저세상에서도 간섭 받지 않는다. 왜냐면 혼이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의 연결을 다시 구해야만 한다. 혼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구원해주시기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충분하지 않다. 선포자가 아직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주 이런 죄짐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마치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의 구원에 관한 일을 하면, 이런 모든 선포자들은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선포자는 그들 안에 돌이키는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미 저세상의 나라에서 그들을 쉽게 만들어주고 빠르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은 만약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면, 비로소 목적에 합당하게 산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유롭게 된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B.D. No. 7783

1960년 12월 31일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그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연결을 이루면, 그가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이런 사람들 각자에게 삶의 전환점이 임했다. 그러면 혼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 그는 확실하게 이 땅에서 그가 한때 지은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저세상에 들어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은 단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만 한다. 어떠한 형식이나 또는 습관을 행하는 것으로 또는 빈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말이나 행동 자세가 그를 속일 수 없다. 그러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과 연결을 구하는 사람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는 것이 각 사람의 삶에서 영적인 전환점이다. 그가 일찍이 이런 전환점에 이르면,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의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기간에 혼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학교 교육하는 식으로 전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직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비로소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 때부터 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그의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이제 영의 영역에서 살고 하나님과 연결이 이뤄진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혼을 영접한다. 왜냐면 혼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갔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의 생각이 올바른 길인 영원한 사랑을 향한 길을 택함을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은 사랑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이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이 그들의 생각은 자신을 창조한 분에게 향해 있고 그들을 이제 붙잡고 더 이상 놓지 않는 분에게 향해 있다. (1960년 12월 31일)

왜냐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역사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 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향한 의지를 증명했고 이로써 그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목적대로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왜 예수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가?

B.D. No. 8453

1963년 3월 30일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긴급하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줘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죄를 용서받는 일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너희는 전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먼저 죄를 죄로 깨달아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 스스로 예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음을 알면, 너희가 단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먼저 너희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마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 왜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이에 관한 어떤 증거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깨달음을 그로부터 생명을 받은 빛의 존재가 한때 타락한 많은 존재들의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일을 제공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 왜 속죄를 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원래 초기에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깨달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어 사람들이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기 쉽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준비해 그들 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하면, 모든 사람은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준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을 거절한다. 단지 스스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서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해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원죄로 인해 이웃들이 처한 상태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 애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는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이 이 땅의 인간으로써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이 땅의 삶을 사람이 모든 영원 동안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이 땅의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 그가 자신과 예수를 생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상상해볼 수 있게 했다. 그가 한 때 이 땅에서 놓친 일을 저세상에서 깨달으면, 그의 후회는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는 저세상에서도 그의 주변이 빛이 되기 전에 예수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할 때까지 죄짐이 그에게 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실제로 그에게 가능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 혼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한 분에 의해 혼이 구속을 받으면, 혼이 들어가게 되는 영역은 전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영역이다.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이래로 거하고 있는 어두움이 혼에게서 사라진다. 이제 그들에게 비추이는 빛이 혼을 아주 행복하게 한다. 혼은 이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깨닫게 된다. 왜냐면 혼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혼의 모든 부족한 점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의가 다스리게 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속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과 신적인 질서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모든 일로 인해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값을 치르거나 저세상에서 값을 치러야만 한다.

그러나 그럼 큰 원죄의 값을 치르는 일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면 원죄는 너무 커서 사람이 절대로 속죄할 능력이 없는 속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이 죄를 자신이 짊어 지고 이 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용서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해야만 하는 것을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두고 의식적으로 예수에게 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에게 용서가 되어 그가 자신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다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과거와 현재에 지었던 모든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위해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죄짐을 해결했다. 그러나 죄로부터 구속을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자유의지로 되어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완성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식적으로 인정하면, 그는 모든 겸손함으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도움을 청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자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저항을 할 수 없고 원수에 대항해 승리하기 위해 구속받기 원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그의 대적자에게 구매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 죄로부터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일이고 결정하는 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김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이 죄짐을 자신이 짊어졌고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바로 사람들이 올바른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당했어야 만했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기 위해 가장 고통이 크게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영접할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할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게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속역사는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너희에게 역사하여 너희가 원하지 않는 자유를 너희에게 선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항상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뢰하라고 알려 줄 수 밖에 없다. 너희는 항상 단지 그를 지나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단지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가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써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진실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

B.D. No. 5891

1954년 3월 1일

너희가 용서를 구하면, 죄가 너무 커서 나에게서 용서를 찾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모든 죄를 아뢰고 너희가 너희의 죄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에게서 제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죄짐을 감당했고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댓가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이룬 그에게 향하는 길을 가면,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의 사랑이 나와 너희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그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 자신과 연합한 인간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너희를 위해 희생을 했고 그의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은 모든 죄짐을 없애고 사랑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붙잡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준비해주시기를 원한다. 사랑은 너희를 돌본다. 왜냐면 사랑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너희를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죄인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죄짐을 얼마나 오래 짊어질지는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너희의 죄를 갚기 위해 인간으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던 내 무한한 사랑은 진실로 죄짐의 크기로 인해 놀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나 자신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면, 가장 큰 죄를 용서받게 된다. 왜냐면 구세주를 인정하고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두고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의 죄짐에서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피처럼 붉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기 원한다.

너희 모두는 또한 가장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로 너희의 죄짐을 넘겨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런 동안에는 내가 인간 예수 안에 육신을 입었고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나 자신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원래의 입자는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는 구속사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죽은 존재는 나 자신이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예수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 느꼈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그가 너희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았고 너희를 끌어 올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짐을 넘겨받았고 너희를 짐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이로써 나에게 가는 길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되었다.

영원한 사랑이 너희를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분리시킨 죄짐이 너희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이고 혼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영원한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죄짐이 해결되기 때문이고 죄인이 예수를 인정함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사랑이 이제 가장 큰 죄인을 영접하고 모든 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묶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해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B.D. No. 7660

1960년 7월 30일

너희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와 고통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이 빛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형편이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속하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귀환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짐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

고 그러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너희에게 닫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죄짐에 대해 용서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 예수에 관한 설명을 구하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스스로 너희의 죄짐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라. 너희는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일이 보장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 후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빛의 정도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너희 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희가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랑의 정도만이 너희 혼의 성장을 정한다. 너희를 대신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너희가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내 형상이 되기 위해 이 법칙대로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희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고 모든 저속한 욕망과 싸우고 너희 성품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긍휼이 있게 공의롭게 인내심이 있게 만들고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금강석 처럼 선명하게 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혼은 죽음을 죄를 부족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혼은 순수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기에 합당할 것이다.

혼은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구세주인 내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한때 그들이 소원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때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이 땅에서 이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전에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죄짐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고 죄짐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다면,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에게 구하라.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지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그가 영접할 수 있게 전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평화와 축복의 나라의 영접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

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나서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나를 깨닫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 자신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바꾸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다.

아멘

죄에 대한 용서...

B.D. No. 0444

1938년 5월 31일

내면으로 들어가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잘못했다면 주님께 용서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이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속적인 기도로 너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가 이 번의 삶에서 단지 특권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믿는 사람들만 주님이 용서한다고 믿는다면, 계획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어진 형식을 잘 따른 후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너희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장 깊은 심장에서부터 너희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진실된 후회를 느끼고, 동시에 주님, 구세주에게 그가 너희의 죄를 벗겨 주기를 그의 신적인 공훈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갖는다면, 구세주의 신적인 사랑으로 너희는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사람이 불의로 깨닫는 모든 것을 심장에서 경멸해야만 한다. 이는 그 안에 죄를 피하려는 결심을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불의를 통해 아버지를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생각을 갖는다면, 경멸과 깊은 후회는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결심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주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후회하는 죄인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관습과 습관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습과 습관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큰 악과 모독적인 행위가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일이 진정한 믿음을 죽이는 악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고, 죄를 사해주는 일에 결과적으로 심장의 느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로써 최소한 죄인이 열심히 전적으로 하나님과 느낌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실제 죄를 사해주는 일이, 사람들의 심장이 주님을 통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항상 또 다시 비록 근본적인 생각과 그들의 의도가 선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잘 못된 가르침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지하게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의무적인 형식을 행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깊은 의미는 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해 아주 필요한 것이다. (중단이 됨, 계속 이어짐)

어떤 사람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죄사함을 위해 항상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다. 단지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이 가운데 사람의 심장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감동이 되어, 즉 그가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예외이다.

항상 이 땅의 자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행하는 의식은 단지 은혜의 역사를 비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겉 보기에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죄의 고백은 전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대로 이러한 형식이 없이, 아버지 앞에 깊이 후회하는 죄의 고백은 진정한 죄사함을 준다. 사람들은 자주 비록 그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심장 깊은 곳에서 원해서 나와야 할 것들이 전적인 기계적인 행위로 바뀌어 졌다.

이런 의무를 충족시키는 일은 항상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심장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창조주요 구세주와 깊은 연결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충만한 은혜를 이 땅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항상 그들이 더욱 더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구세자가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첫 걸음은 그가 스스로 내딛어야만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신은 이를 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찾아낸 것처럼, 내면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는 이 죄를 경멸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후회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소원이 생긴다. 그러면 심장으로부터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는 자신의 큰 사랑으로 유일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의 귀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말이고, 사람들이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많은 해석들을 했다. 이를 교정하는 일에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사람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깨어난 영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로써 너희가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제자들은 능력을 덧입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죽은자를 살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를 향한 분산되지 않은 믿음의 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왜냐면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힘과 빛으로, 권세와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진리 안에 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말을 통해 인간

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나의 제자였고,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면의 말씀을 통해 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사랑 안에 섰고 나를 믿었고, 이를 통해 그들도 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의 영을 통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역사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였고,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이 나의 뜻대로 산다면, 다시 말해 나의 형상에 따라 자신을 형성한다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어 한다. 왜냐면 사랑이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 안에 서게 되면, 그는 또한 힘과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였고, 그들에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고, 나의 죽음 후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다시 선포하고, 사람들이 나를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모범을 남겼다.

그러나 비록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영 안에서 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인도한다. 왜냐면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모든 존재는 나의 신적인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내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왜냐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이제 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자신의 발산인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또한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특별히 만약에 질병이 그들의 죄의 결과일 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죄 자체를 덜어줘야만 한다면,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무가치함,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의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최악된 상태로 남겨 둘 자격이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인간적인 깨달음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음과 그들을 향한 은혜로운 역사가 쓸모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깨달음에 따라 사람들을 고려할 권리를 주었다. 왜냐면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역사했고, 나의 영이 나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거만하게 착각하고, 그들은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갖게 되었다. 즉 제자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그들의 영을 따른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 그대로 이런 권리를 인정했고, 이로써 비록 그들이 이제 또한 올바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가 진실로 나의 제자인지 선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부르는 사람이다. 왜냐면 내가 제자들에게 다음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러나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한다. 그러나 진리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은,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우침

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도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의 힘이 그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즉 사람들이 나와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성숙한 영의 상태를 통해 사람이 언제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 대신에 행하기 때문이고, 실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 의해 부름 받았음을 전혀 증명할 수 없고,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지 않았고, 그들 안에서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부름 받은 것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이웃 사람의 죄를 용서할지, 죄 가운데 놔둘지 판단하기 위해 이웃 사람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를 판단하는 일이 이미 영의 역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믿는 대부분의 종들이 내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왜냐면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이다. 즉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로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 순수한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스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사람이 자유로워 지도록 돕는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말은 자주 기만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말에 심장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제자는 자신의 이웃 사람을 깨닫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 진지한지를 알고, 내적인 확신이 없이 말하는 많은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일반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죄사함은 단지 가장 깊은 회개가 선행되고, 나의 제자들이 그런 회개를 깨닫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의 판단은 내 앞에서 유효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단지 나의 사명대로 행하고, 그의 역사가 항상 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나의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일하여, 그들이 내 뜻과 달리 생각할 수 없고 원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나와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종을 부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누가 이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고, 누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요구되는 은사를 갖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또한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영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단지 형식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가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짐을 벗게 한다. 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에 속하려는 의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회개와 즉 죄를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는 깨달음은 죄사함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계속되는 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실제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로써 그가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 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죄짐을 벗겨 줄 수 없다. (1947년 11월 13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짐이 그를 짓눌러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1947년 11월 14일)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가 겸손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개적인 고백과 그가 죄를 용서받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대로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혼이 성장해서 그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고, 귀가 밝아지게 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수는 죄의 결과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 말했고, 제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한 죄인들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그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구하게 만든 죄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후에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변형시킨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죄사함이 달려 있다고 믿고, 죄의 고백이 자주 형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깊은 내면의 후회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과 죄를 혐오하는 일과 진지하게 개선을 향한 갈망하는 일이 단지 사람의 심장에 연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이런 요소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추가한 계명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아주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순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내적 헌신과 전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계명대로 사는 일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이다. 왜냐면 모든 외적인 요소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적게 관심을 갖고, 단지 인간이 추가한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혼에 대한 작업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

깊은 회개의 결과인 죄를 혐오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사람들의 영적인 퇴보를 증명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지 않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든다면, 사람이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양육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되게 죄의 용서를 묘사하는 일이 또한 자원하는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진정한 긴밀함이 가치가 있고, 모든 곁형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아멘

너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B.D. No. 6709

1956년 12월 8일

너희가 성경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력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말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깨우침을 받은 영이 필요하고 내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다. 왜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 내 영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도움을 그들에게 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후에 할 수 있는 만큼 내 영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내 영의 역사를 허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식적으로 구원 사역의 은혜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내 영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고 내 영이 이제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그는 다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보류하면, 죄가 그에게 남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내 제자들에게 했다. 나는 제자들이 내 영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죄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는 각 사람들의 상태를 밝고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내 제자에게 병고침을 구할 것을 알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죄짐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단지 병고침만을 원하는지 알았다. 내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알았다. 제자들의 영의 깨우침을 받았고 이제 내 의지를 전적으로 영접했고 전적으로 내 뜻대로 살고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직분을 행하며 전 세계에 내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지시를 해주었다. 제자들도 누가 죄 사함 받기에 병고침을 받기에 합당한지 누가 아직도 깊은 죄악 가운데 있으며 죄는 멀리하지 않고 단지 병고침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단지 사람들의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온 영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올바르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올바른 사랑의 삶으로 내 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내 올바른 제자이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내 영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우침을 받고 내 말씀을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내 말씀은 내 말씀의 유효성이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후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의뢰하거나 또는 내 영으로 충만한 종들 중 한 사람에게 의뢰하면,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종들도 내적인 지시를 통해 누가 크게 후회를 하는 내적인 죄의 고백이 부족한지 알고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들의 심장을 알고 내 영을 받으려는 그들의 자세를 아는 내 제자들과 그들이 내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만든 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 같은 말씀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조건을 성취한 사람들과 그들 안에서 내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용하는 사람들을 내 제자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단지 같은 위치에 세우고 자신에게 또는 자신 위에 영을 받는 일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로 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 사함을 유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영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전혀 부족한 사람이 자신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안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영의 볼 수 있는 역사를 나타냈을 사람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통해 얼마나 무의미하게 내 말씀을 변경시키는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의하라. 내 영은 단지 희귀하게 공개적으로 역사한다. 왜냐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깊은 사랑과 이로 인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나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 영의 역사가 역사하는 곳에서 내 영의 역사를 막는다. 순수한 진리가 설명해주려고 하는 곳을 사탄이 역사하는 곳으로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구하는 곳에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지를 증명한다. 이런 곳에 있는 어두움은 이미 너무 깊어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설교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모든 잘못 된 가르침에 놀라며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헛되고 그런 말은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또 다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사랑이 유일하게 영에게 밝은 깨달음을 주고 사랑이 유일하게 내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너희가 사랑으로 올바른 제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자신을 나를 따르는 제자로 여길 수 있고 빛으로 깨달은 영의 사람이 되어 진실로 후회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확실히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나 자신이 후회하며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를 용서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의 신체의 질병도 고쳐 줄 것이다. 나는 영이 깨어난 종들에게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이로써 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보류하면, 죄가 그에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내 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죄짐...

B.D. No. 0459

1938년 6월 10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은 인간이 이 땅에서 치른 어떤 희생보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류를 강타한 모든 고난은 당연히 그들이 벌어드린 대로 그들에게 임했다. 주님의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이었다. 주님의 혼은 아버지와 하나였다. 그러나 육체는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으로써 육체는 전적으로 죄가 없이 오직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갚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사람들이 구세주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묻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에게 답을 줄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사랑으로 너의 구세주께 신앙고백을 하면, 네가 네 자신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몇 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 땅의 자녀는 모든 죄를 통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모든 죄를 이 땅의 자녀가 직접 갚아야만 한다면, 너무나도 큰 이 죄를 사람들이 이 땅의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런 죄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인가!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을 찾은 사람이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은혜와 행복에 합당치 않게 만드는 큰 죄짐으로 모든 존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일이 결코 불가능했다.

영원한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게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한다. 그러나 주님을 찾은 사람은, 회개하여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존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에 자신을 합당치 않게 만든 큰 죄짐으로 인해 아버지의 얼굴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을 향한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커서 그는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은혜의 행위를 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녀가 먼저 주님 자신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가장 큰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께서 인류를 혼의 죽음과 혼의 쇠퇴로부터 구원한 이 위대한 은혜의 선물에 대해 온 심장을 다해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고, 그렇게 할 의지 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큰 사랑으로 몸의 가장 끔찍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를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깊은 겸손으로 절하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그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라. 너희 자신을 이 구속 역사에 합당하게 만들라. 이로써 너희가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구속역사의 은혜.

B.D. No. 3445

1945년 2월 23일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청하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 그는 사람들의 고난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주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은 이런 부름 후에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자신의 구속사역의 은혜로서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모든 두려움은 그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더 큰 힘으로 높은 곳을 추구할 것이고, 이 땅의 고통이 그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느냐!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적느냐! 얼마나 희귀하게 구속사역의 은혜를 요청하고 의식적으로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이 지나칠 보일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견뎌야만 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아주 크고, 인류의 의지는 연약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의 길을 가기 때문이고 따라서 엄청난 짐을 지고 큰 정화를 위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그들 자신이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의 혼의 걸형체가 녹여야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 안의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이로써 그들이 이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게 한다. 고난이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게 하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단지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짊어 지도록 도와달라고 구할 때, 단지 이 땅의 고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연약한 의지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때를 통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더 이상 힘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 힘으로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고난에 의해 짓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죄에 대한 형벌도 자신의 어깨로 짊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구한다면,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정화가 될 수 있다. 그는 정화나 고통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강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지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속사역의 은혜가 제한이 없게 인간에게 제공된다. 그는 이 은혜를 항상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운명이 진실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구원받으려면 활용해야 하는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위험 가운데 십자가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헛되이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의 고난은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의지는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적인 육체적 비참함을 극복하는 그의 힘이 증가 될 것이고, 그는 삶의 싸움을 견디어 낼 것이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할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게 다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과 믿음.

B.D. No. 7836

1961년 2월 26일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의 나라를 다시 열었을 때 내 대적자에게 너희의 의지로 대적하는 한 내 대적자의 너희를 향한 권세는 꺾였다. 이러 일은 너희 자신이 이 전에는 너희가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어 전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불가능 했던 일이다. 내 대적자는 너희가 그의 권세를 벗어나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할 준비가 되면, 너희의 의지를 더 이상 묶을 수 없다.

너희는 이제 나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희생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단계에 있는 너희의 의지는 자유 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어느 편에 의해서도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는 전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의지는 내 대적자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약해진 의지가 강하게 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원죄가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만든 원인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만 하고 이 원죄가 구속사역을 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왜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이 사람이 진실로 어떠한 사명을 성취시켰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는 나 자신에게 곁형체를 제공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후에 빛의 나라가 너희에게 닫혀 있게 한 큰 죄를 용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너희에게 모든 연관관계가 선명해야 하고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일이 바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다. 왜냐면 너희가 구속을 받기 전까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에게 향하려는 너희 자신들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안의 나에게 나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라. 너희는 진실로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이미 나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게 산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목표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체험하려는 의지가 이미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준다. 왜냐면 이 의지가 너희가 너희를 영의 어두움 가운데 묶어 두기 원하는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함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구하면, 너희는 빛을 갈망하는 것이다. 영원한 빛이 너희에게 비추일 것이다. 이 빛은 진실로 너희에게 올바른 지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 나 자신에게 향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위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 너희가 스스로 다시 나와 연결되고 깊은 곳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아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없다. 그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 안에 있는 나 자신 외에 나 자신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기 원하면, 단지 예수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위해 내가 나 자신의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를 내 곁형체로 택했다. 나는 너

희가 나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채우는 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고 영원히 더 이상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죄를 속죄하는 일.

B.D. No. 2929

1943년 10월 17일

사람의 죄의 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가 죄를 끝까지 갚아야만 하고, 그가 완전히 혼자서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 그는 영원에 영원을 걸쳐 죄를 속죄해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죄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은 죄로도 혼이 끝없이 긴 기간동안 혼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설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는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속죄할 수 없고, 그러므로 언젠가 영원의 세계에서 구세주를 찾기 위해 이 큰 죄를 영원으로 가지고 가야만 한다.

존재는 영원에 영원을 거쳐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영원에 영원을 거쳐 자유가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묶임을 받은 상태를 견뎌야만 한다. 존재는 영원에 영원을 거쳐 은혜의 태양을 잃게 된다. 이런 일은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일이다. 왜냐면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치를 고수하고, 절대로 그의 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완전히 모순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한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속을 받게 하면, 그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그의 모든 속박은 사라지고, 모든 속죄하는 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왜냐면 그는 저세상의 끝없는 고통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가 이 땅과 저세상의 큰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이를 짧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구매한 대가이고, 그로 인해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이 한가지는 사람이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로써 그의 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댓가를 지불한 죄에 속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고, 짐으로써 이 땅의 죽음 후에 영의 나라로 옮겨지고, 존재가 영원히 이 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구속하려는 의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지 멸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구매한 강하게 된 의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을 그의 발 앞에 놓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렀다.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B.D. No. 7235

1958년 12월 21일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드리기를 위해 그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붙잡아 자신에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그리스도가 그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곁형체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는 자유한 영적인 존재로 그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물질의 곁형체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그의 의지를 통해 모든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다.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면 그는 이전에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죽음의 상태에서 어두운 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산다. 그는 자유한 가운데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밝은 영을 가지고 있어 그가 자신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든지 또는 저세상에서든지 올바르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단지 자유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동시에 한때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피를 흘린 후에 그러므로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한때 자신을 떠난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단지 이런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면, 자유로운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게 된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사람에게 단지 예수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도움을 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가 단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약속대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단지 자유와 공의 가운데 가능하다. 이는 큰 죄짐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신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B.D. No. 7688

1960년 9월 2일

너희가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축복될 수 없음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원죄의 죄짐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제 겉으로 보기에 공의롭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믿는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의 삶을 떠나면, 너희에게 축복의 문은 닫힐 것이다.

너희는 빛의 나라에 아직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그가 너희를 위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죄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가 이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구속사역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를 믿는 단지 적은 수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설명받기 원한다. 그들은 이런 모든 믿음의 가르침을 인정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살거나 믿음의 가르침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끝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들이 이를 믿을 수 없으면, 그들은 이에 관한 진리를 체험해보려고 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은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면 종말이 가깝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종말의 끔찍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사람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파문을 받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열어 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에 알려져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단지 전설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고 인간 예수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에게 돕기 위해 행한 일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돼야만 한다.

사람들은 구속사역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리를 체험해야만 한다.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에 대해 원죄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 단지 진리만이 사람들이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아직 행해야 한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B.D. No. 7950

1961년 7월 26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너희는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제외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그의 역사를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역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이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의식적으로 구속사역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대적자에게 향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존재는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그를 떠나기 위한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대적자에 의해 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존재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렀을 것이다.

예수는 구속사역을 통해 그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해 타락한 자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어서 존재들은 이제 대적자에 대항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을 통해 어떠한 존재도 귀환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가 귀환하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환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환을 위해서는 항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순식간에 구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창조물들은 이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은 한때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자유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게 만들어 졌다.

만약에 그가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면, 그의 구속은 확실하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출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저세상에서 성장해 나가서 다시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역사할 수 있다.

그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의지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예수가 그를 위해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구속역사가 자신을 위해 완성되었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어야만 한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이런 구속역사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 스스로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의 존재들이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모든 타락한 영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이제 모든 존재가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스스로 다시 도달하게 하면,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이다.

왜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너희에게 전적으로 구속을 보장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죄짐이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너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이로써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이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가장 긴밀하게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로서 이제 빛과 축복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B.D. No. 8036

1961년 11월 8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너희 아버지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 이 사랑이 너희가 나에게 하는 부탁을 너희에게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질문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답변할 것이다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너희는 도구로서 나를 섬기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내 일꾼을 통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는 사람이 항상 내 사랑의 계명을 존중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너희의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를 통해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해 나를 떠났던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면 그는 이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으로 그와 연결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삶의 방식이 사랑의 삶이 그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나와 계속하여 연결이 되게 만든다. 그럴지라도 그는 빛의 나라의 영접될 수 있기 위해 공의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해야만 하는 원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것을 그가 알면, 그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의 원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사랑의 삶이 그로 하여금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다. 원죄를 사함 받지 못했으면, 그에게 가장 밝은 깨달음을 주는 사람 안의 영은 깨어날 수 없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써 영의 어두움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영이 그에게 인간 예수의 사명과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나는 것은 비록 항상 사랑의 삶의 결과이지만 영이 깨어나는 일은 대적자에 의해 주어진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되게 시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의해 방해 받는다.

왜냐면 그는 단지 진리만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은 생각을 바꾸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지 못한 동안에 그의 생각은 대적자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대적자의 이 혼에 대한 권세가 아직 중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름으로 나를 상상하던지 간에 내적으로 나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된다. 그들이 저세상에 가게 되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 간다. 그들 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면 내가 이제 그들의 영에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록 그가 빛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대적자가 그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 된 생각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깊은 내적인 갈망이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의 방식과 선한 의지 때문에 그에게 용서가 보장이 된다. 이런 혼 안의 모든 저항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나가게 한다. 이런 혼들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밝고 선명하게 놓이게 된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그들의 원죄가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 이로써 그들에게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는 열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깨닫는다.

왜냐면 나와 그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곳으로부터 혼의 구원. 저 세상.

B.D. No. 5153

1951년 6월 17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그들은 이 땅이나 또 는 저 세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깊은 곳의 어두움의 영역에서 밝은 아침으로 나오기 위해 단지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위를 향하는 이정표이다. 왜냐면 죄악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이 길을 열었고, 그가 깊은 곳에 있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치렀고, 모든 혼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택하고,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깊은 곳을 벗어나기 원하면, 모든 혼이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혼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고,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죄짐이 사라지고, 혼을 위해 구속역사가 헛되이 드러진 것이 아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고, 지옥으로 내려 갔다. 그는 또한 깊은 곳에 있는 혼들에게 구속사역의 은혜를 주었고, 또한 저 세상의 나라에서도 혼들을 위해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 왜냐면 그가 죄를 위해 흘린 피가 단지 혼이 지은 죄에 대해 보상할 수 있고, 그의 용서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 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완성했고, 이런 사랑의 역사는 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의 공훈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난 혼들에게까지 임한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혼은 이 땅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기를 원해야만 하고, 그의 사랑이 자신의 위험을 공홀히 여기기를 원해야만 하고, 그의 사랑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리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과 이를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혼이 이 땅에서 이런 지식을 얻지 못했다면, 혼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어두운 혼은 지식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적고,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지 않게 된다. 그들이 완전히 완고하지 않으면, 중보기도와 사랑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생각을 통해 지식을 얻도록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지식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할 수 있다. 그의 도움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부르는 모든 부름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게 된다.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저 세상의 혼들이 이를 체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들이 절대로 그들의 생각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사랑과 공훈로 고난을 줄여주고, 끊임없이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축복된 상태로 바꿔주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의 의지가 항상 필요하고, 이런 의지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믿음과 사랑 안에 섰고 이로써 아직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

아멘

지옥으로부터 구원. 십자가 형체의 빛의 광선.

B.D. No. 5929

1954년 4월 13일

지옥은 자신의 희생자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두움 속에 거하는 존재들은 그들을 묶고 있는 내 대적자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지하 세계의 권세자를 무력화시킬 무기인 사랑의 무기가 없다면, 이런 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멸망받을 것이다. 사랑의 무기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 치는 무기이다. 나는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고 사랑은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고 혼 자신이 원할 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랑의 무기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계속하여 가장 강력하게 나를 대항해 저항을 혼들의 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 사랑이 지옥으로 내려 가고 내 대적자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는 내 사랑 앞에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두움의 존재도 나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들은 단지 나를 외면하고 내 사랑의 빛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혼들은 당분간 개선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각각의 혼의 상태를 알고 언제 저항이 줄어드는 지를 알고 혼이 언제 게으른 상태가 되어 이런 혼이 내 사랑의 빛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안다. 나는 이런 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간다. 왜냐면 이런 혼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들에게 십자가의 형체의 빛이 비춰지고 혼들이 번개와 같이 빠르게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기억하고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안도감을 느끼고 갑자기 자신의 주변을 벗어나려는 영감을 얻는다. 왜냐면 십자가가 반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고 희미한 희망이 그들 안에 떠오르고 혼들이 이런 희망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생각을 더 이상 물리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소원은 내 사랑의 비추임의 효력이다. 그러나 이런 효력은 존재가 저항을 포기한 곳에서 단지 역사한다. 이런 수동적 상태는 또한 내가 지옥을 향해 베푸는 사랑의 결과이다. 이 사랑은 지옥의 영역에서 증오의 파도를 부드럽게 하고 저항을 꺾고 혼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혼의 동기가 함께 참여하고 나는 혼의 의지를 잘 알고 있고 이런 혼에게 구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혼에게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면, 최고로 악한 어두움의 세력도 더 이상 혼이 한번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혼에게 도움을 약속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혼의 의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예수의 사랑이 혼을 붙잡을 수 있고 혼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혼의 의지와 나를 부르는 혼의 부름이 혼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슬을 풀고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두움의 세력이 도피하고 혼은 빛 안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종들의 영접을 받는다. 사랑의 종들은 혼이 위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도록 도움을 준다. 비록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타락한 존재의 저항이 아직 아주 클지라도, 혼은 언젠가 내 사랑이 자신을 붙잡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한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어떤 혼도 영원히 멸망받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B.D. No. 8784

1964년 3월 19일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빛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이미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 모두는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전적으로 영을 잃어버리고 저세상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빛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게 되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 긍휼과 은혜가 비록 모든 혼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내 공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지 고려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혼은 항상 단지 영의 나라에서 그의 이 땅의 삶에 합당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의 죄짐을 속죄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된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게 되고 그들은 항상 더 깊게 타락해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모든 구속사역의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에게 영적인 위험을 준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의 혼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보장해 주는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일은 전 인생을 거쳐서 가장 추구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그런 혼에게는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혼은 축복을 넘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구속사역의 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이에 관해 알지 못하게 계속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간 예수가 한때 이 땅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최고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는 일을 믿을지라도 그들은 높은 영적인 사명이 인간 예수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역사가 최고의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과 예수가 큰 죄를 용서해주려고 했고 넘치는 큰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역사로 단지 상쇄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줬고 이를 통해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의 넓은 간격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된 역사는 하내 신비로운 역사로서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 된 상태로 인해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먼저 예수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는 비로소 자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을 통해 예수와 깊이 연결 된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의 영으로부터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가 나에게 대적하며 거절함으로 한때 잃었던 깨달음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이런 모든 연관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을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의 구속사역과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같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가 전에 깨어난 사람을 통해 단지 듣기만 했던 내영을 항상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수한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통해 초청 받는 것을 느끼고 진리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이로써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사람들이 저세상에 들어 갈 때 너희의 운명을 얼마나 더 낮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왜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내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영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너희의 이성을 자극해 이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충분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너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는 일에 대한 지식은 단지 내 영의 역사로 너희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내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최고로 중요한 이런 지식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예수 자신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최고로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실제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문제가 예수가 없이는 인류가 영원히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로부터 떨어져서 머물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없이는 혼들이 저세상에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원죄의 짐이 그를 누르는 기간 동안로 바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고 빛의 존재들의 노력에 순응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짐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예수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까지 그들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가 자신의 긍휼의 역사인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원죄로부터 구속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비록 함께 속한 근거이긴 하지만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영의 어두움 가운데 흑암의 권세자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그들의 자기 사랑이 죄악으로 인도해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죄의 죄값은 저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러운 영원한 시간이 흐를지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죄가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고 한때 나를 떠났던 어떤 사람도 비록 그가 영원에 영원까지 불행한 가운데 보낼지라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원죄 때문이었다.

이 원죄가 바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원인이다. 왜냐면 사랑이 스스로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가장 큰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해주려고 한다. 나는 마지막 때의 내 제자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너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자신을 그 안에 모신 세상의 구세주이고 나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B.D. No. 7839

1961년 3월 2일

저 세상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원 동안 구원을 받는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하거나 또는 여명 가운데 거하는 혼이 내 이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밝은 빛의 일꾼을 통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을 전하면, 어두움은 그로부터 사라진다.

이미 내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하고 자유롭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영접하기까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역사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함께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존재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혼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속사역을 거론하는 곳에서 혼들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이 함께하게 부르는 일은 큰 축복이다.

왜냐면 그들이 축복되지 못한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편을 나아지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도우려는 의지를 느끼면, 저항은 이미 줄어든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항상 또 다시 혼들에게 제공이 되는 도움에 대한 저항도 줄어든다.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이미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이 받는 모든 감동은 결과를 나타내 혼을 행복하게 하고 빛에 대한 갈망을 크게하는 작은 빛을 혼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나를 찾지 못한 저세상에 있는 혼

들은 나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자주 생각하면, 너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혼들에게 항상 단지 유일하게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주면, 너희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하는 생각은 빛의 불씨와 같고 그들 안에 기쁨을 주는 그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빛의 근원을 향해 추구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멀리 하면서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떠한 영적인 재물도 없이 저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재물을 자유의지로 얻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복음을 사랑으로 그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혼들을 영접하면, 혼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이 그들을 항상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을 너희들로부터 영접할 것이고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예수 안의 나를 찾지 못한 혼들을 자주 생각하라.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너희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큰 의미가 있는 축복된 구속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많은 혼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종말이 오면, 그들이 새로운 파문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죽은 혼에게 능력을 주기를 구하는 기도

B.D. No. 9014

1965년 7월 13일

너희 생각이 항상 죽은 사람들을 향하면,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항상 알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들을 돕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너희에게서 빛을 보면, 그들은 다가오기 원하고 이 빛으로부터 힘을 얻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지금까지 오류에 빠져 있었다면, 특별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혼들을 위한 생각과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다가오라는 요구를 하는 생각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위험이 크고 특히 사랑해 중보 기도가 따르지 않는 이러한 혼들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그들이 진리에 도달하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가르침에 참여하도록 의식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이미 혼들을 이제 계속하여 너희에게 묶어두게 하기 위해 충분하다. 혼들이 너희를 더이상 떠나지 않는 일은 항상 성공할 것이고 혼들이 나 자신이 이제 말할 수 있는 많은 무리에 속하게 되는 일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너희는 적은 지식을 가진, 그들이 돕기 원하는 혼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혼들로 항상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구속 사역에 관해 알려 주는 일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예수를 찾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그들이 비로소 깊은 지식을 영접하기 때문

이다. 그들은 선행 조건으로 먼저 사랑을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위험에 처한 혼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사랑하려는 의지를 사용하면, 그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항상 더 깊게 들어갈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제공이 되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

그러나 혼이 언젠가 한번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혼에게 첫 걸음은 알아 아주 어렵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의지가 변하는 일로 나타나고 의지는 이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혼을 부르는 부름을 따른다. 그러므로 모든 부탁에 주의를 기울이라.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혼에게 도움을 주라. 혼이 실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단지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이 된,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다.

너희에게 자리를 잡은 모든 혼들은 나의 말에 거대하게 역사할 능력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이 또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한번 나의 영의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빛은 너희에게 제공되는 것을 즉시 자원하여 영접하기 원하는 많은 혼들을 이끌고 또한 너희가 너희의 중보 기도하는, 그러면 멸망 받을 수 없는 모든 혼들을 이끈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이 너희를 이러한 혼들에게 이끌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이러한 사랑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혼들에게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저 세상에서 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 법에 첫째로 나 자신이나 또는 나의 대적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는 존재들의 자유의지가 속해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존중해야만 하는 너희가 아직 그들의 의지가 약한, 그러나 너희의 사랑의 능력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의지를 되돌릴 수 있는 혼들을 단지 사랑으로 기억해야 한다. 사랑의 능력이 그들의 의지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그들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이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는 너희에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

너희를 따르는 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말을 영접하는 지 안다면, 어떻게 혼들이 성장에 나가는 것을 항상 느끼는지를 안다면, 너희의 중보기도를 통해 너희가 가르치는 데 참여하도록 도움을 받은 혼들이 얼마나 너희에게 감사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이러한 모든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이런 혼들의 성장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혼들이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혼들이 계속 말씀을 받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는 또한 너희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혼들이 너희의 주변에 있다면, 대적자의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전하면서, 이로써 가장 귀한 음료수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 너희가 아직 많은 혼들을 구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중보 기도가 없이 아주 오랫동안 아직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혼들의 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내적인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너희의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라. 너희는 이런 부름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그를 의식적으로 너희 가까이로 부르라. 그러면 위를 향한 첫 걸음을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보기도하며 이러한 혼을 도우면, 내가 그의 도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질서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도움 주는 일이 불가능한, 혼에게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자유의지가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사랑하는 중보기도를 보고 이러한 혼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이제 너희를 통해 나에게 음성을 듣는 은혜를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 이를 의식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대적자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대적자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랑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내가 이제 또한 그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저 세상에 혼에게 말하기 원하면, 나의 대적자가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내가 특별하게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구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묵고 있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고 사랑이 나의 대적자가 패배하게 하고 나의 대적자는 사랑 앞에 도망을 친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의 일부분이고 영원히 나의 일부분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B.D. No. 6383

1955년 10월 22일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 구원 역사의 은혜를 활용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사람은 내 긍휼의 역사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사람 자신이 저항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저항은 그가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그가 내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일이고 이로써 그가 의식적으로 죄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추종자가 되는 일이다.

자신을 내 십자가 아래 두고 자신의 죄의 짐을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에게 빛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빛의 나라가 닫혀 있었다. 내가 그를 위해 속죄를 행했고 이로써 그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면 비록 희생이 또한 그를 위해 드러졌고 그가 또한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과 긍휼의 역사는 그에게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자원하여 내 대적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였다. 그러나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인류가 축복에 도달하도록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을 더 많이 생각

하고 너희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 너희 모두를 위한 인간 예수의 아주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영적인 비참함이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킨 큰 죄짐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아주 충만해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의 곁형체가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게 했고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힘을 키웠다. 너희는 항상 이런 무한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 은혜는 너희에게 풍성하게 제공이 되고 너희는 단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부르기 만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의 부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공황의 역사가 단지 너희를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과 모든 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고통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간수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간수장은 너희를 이미 영원한 기간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고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묶임 아래 아직 항상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너희는 왜 구속사역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에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죄의 짐을 그의 십자가 아래로 옮기지 않느냐?

너희 혼자서는 그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 일에 쉽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가 너희의 혼의 원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너무 연약하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에 묶여 있게 된다.

너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주제 넘게 그를 단지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성육신의 신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내 역사를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 내가 내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열어 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을 다스리는 일. 강화된 의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B.D. No. 3213a

1944년 8월 4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크게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요구된다. 즉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한 때 하나님을 배반한 원죄 때문에 의지가 연약해져서, 자주 전적으로 의지가 없게 될 정도로

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의지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도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저항하고,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수단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가장 약한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왜냐면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가된 의지를 구매했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이 증가된 의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때 지은 죄가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와 죄의 결과인 약한 의지를 자신이 짊어졌다. 그는 자신의 희생 제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강하게 된 의지를 돌려주고, 사람들이 이제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얻은 일은 은혜이고,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이 일어나 모든 힘과 강함으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강하고 강한 의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진심 어린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할 때 구속사역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단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인내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한 의지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가 구하는 일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은 자신을 극복하는 일로 나타난다. 그는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고, 그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희생을 해야만 한다. 즉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웃에게 줘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뒷전에 뒤야만 하고,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만 한다. 이런 모든 일에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고, 모든 좋은 의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강한 의지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 받지 못하고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기 정복. 강화된 의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B.D. No. 3213b

1944년 8월 6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의 뜻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세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세상의 유혹이 항상 너무 커서, 사람들의 의지가 견디기에는 너무 약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현재에도 세상 기쁨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노력하는 일이 그의 무기이고, 대적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이로써 그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완전한 성공을 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긴밀하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긴밀하게 요청한다면, 사람들은 곧 구속 사역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할 것이고, 그들의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은 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있는 곳에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해진 의지는 단지 심연으로 이끄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은 아래에서 온다. 즉 그는 생명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이런 생명력을 강하게 해주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지가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와 연합하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인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 은혜를 사용할 수 없다.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깊은 믿음을 가지면, 그의 의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강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게 소유한 의지의 힘이 그에게 공급되고, 그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대적자의 권세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 추구하는 일이 어려워도, 그는 이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가 강하고, 강한 의지에 따라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고 구속역사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얻은 힘이다.

아멘

너희가 혼의 성숙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반복해 나에게 안내와 경고와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너희 인생의 운명을 인도해 너희의 의지가 내 의지에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게 너희가 계속하여 너희의 영적인 성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너희가 올바른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힘으로는 전적으로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면 너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아직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대적자가 너희를 사슬로 묶고 있는 동안에는 대적자가 너희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로써 너희에게 강화 된 의지의 은혜를 구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사슬을 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죄를 해결했다. 큰 죄의 결과는 너희의 의지가 묶임을 받고 연약해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의지의 연약함을 극복한다. 너희는 이제 예수의 구속을 통해 내 의지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너희가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한 분을 찾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 된 한 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부름을 통해 너희는 다시 너희가 한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해 너희가 불행한 상태인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나를 다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복될 수 없다. 너희는 연약하며 빛이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 이런 상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빛과 능력과 자유한 상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능력과 자유를 잃었다. 인간으로써 이제 너희는 다시 나를 그리고 너희의 원래 상태를 추구한다는 너희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는 일은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지가 강하게 될 때 너희가 그에게 향할 때 그리고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를 구할 때 너희의 죄를 위해 그가 그의 피를 흘리기를 원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부름으로써 이미 나에게 돌아오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즉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냈다. 내가 모든 무한함을 채우는 영으로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 형체에 전적으로 비추어서 나로부터 창조 된 존재가 이제 나를 대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절대로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항상 그리고 항상 반복해 내 말을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이 창조주 아버지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단지 예수 안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들부터 다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이를 인정하는 것이 너희의 이 땅의 전 삶의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너희의 원죄를 해결한 예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깨달음을 주고 그들 안이 빛이 되게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경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지식을 모든 진리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직접 내 말을 이 땅에 보낸다. 왜냐면 진리가 너희 심장에 비쳐지는 너희의 성품을 원래 초기에 너희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진리를 통해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진리가 너희에게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을 밝혀 줄 것이다. 너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B.D. No. 8420

1963년 2월 23일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내 영원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실행이 될 것이고 단지 이런 변화에 걸리는 시간은 너의 자신이 정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언제든지 그에게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해 주기 위해 모두가 이 은혜로 나에게 귀환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권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한때 나로부터 창조 된 존재들은 깊고도 깊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고 이제 자신의 완성을 위해 자유의지로 이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온전함으로 내 권세와 내 사랑으로 생성되게 했던 자신의 원래 성품을 덧입을 때까지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권세가 너희의 온전함의 근거가 아니고 너희의 자유의지가 온전함을 추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원래 초기의 내 계획대로 했다. 인간으로써 단지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시험이 된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영원에 비할 때 단지 눈 깜짝할 사이이고 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하면, 완성에 도달하는데 충분하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람들은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 은혜의 크기는 소모되질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서 그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인 그 안에서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그 자신으로부터 빛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제 나를 깨닫고 자신을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했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 성장을 이루게 자신의 원래 초기에 가졌던 성품을 바꾸는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게 도달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으로써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을 완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단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한다. 이 결정을 위해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 졌다.

왜냐면 그가 인간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의지와 내 권세가 뒤로 물러나고 사람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는 아주 높고 의미가 크다. 왜냐면 피조물으로써 최고 단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존재에게 내 권세가 선물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완성시켜야 할 완성시킬 수 있는 너희 자신의 역사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러나 너희에게 넘치게 은혜의 수단을 선물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너희가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비추어지고 너희가 이런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여는 만큼 너희의 위를 향한 성장은 쉬워질 것이고 너희는 더욱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진 강한 자기 사랑을 올바르게 신적인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주려고 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전적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다. 그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내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자신의 자기 사랑을 극복한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사랑 안에서 항

상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열중할 것이다. 이 사랑은 혼에게 설명을 해주고 혼을 밝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랑은 성장할 것이고 혼을 전적으로 채울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귀환의 완성에 이르렀고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시험 가운데 힘을 구하라. 영적인 성장.

B.D. No. 1736

1940년 12월 12일

외부의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영향들이 인간의 혼에 결정적이고, 자주 인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접촉하게 하는 자극을 혼에게 불러 일으킨다. 이런 일은 항상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은 한 단계 위로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기를 자원하는 것이고, 이런 일은 항상 혼이 성숙한 상태가 되도록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게 한다면, 항상 혼에게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모든 고난이 혼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정하게 된다. 시험을 위해 그에게 내려진 모든 일이 그를 짓눌리게 되거나 또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으로 힘으로 극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한 권세의 지원을 받아,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는, 사람이 영원한 신성을 무시하다면, 즉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신의 편에서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 인간은 이 땅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그의 혼에게 결점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추구를 하는 일이,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저항력을 시험하기 위해 유혹에 노출되고, 이제 순전히 이성적으로 선명함을 얻으려고 할 때, 대적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적자는 사람의 생각이 오류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긴밀한 생각은 대적자의 활동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깨닫는 능력을 날카롭게 만들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유혹은 효과가 없게 머물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요구를 받던지 간에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힘의 공급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계략이 아주 끈질기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작은 연약한 변덕을 활용할 것이다. 대적자는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그의 관점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항상 혼을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한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이 대적자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지기 전에,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에게 무한한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을 더 늦게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수록, 투쟁이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멘

시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의지로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은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 지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면 단지 말만으로 충분치 않고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만 하고 진지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진지한 의지를 알아 채자 마자, 너희에게 능력이 제공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진지한 의도를 갖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한 결정이야 말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의 강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 너희가 전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를 향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의지의 연약함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나를 향한 의지의 변화가 내가 그를 구속역사의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가 내적인 추구를 따르면, 그는 능력을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비로소 확실한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한다. 왜냐면 이 도움이 없으면, 내 원수 곧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가진 내 대적자의 공격으로 그의 의지가 항상 계속 마비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그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나에게 드러진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단 한번 내면에서 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권리가 있다.

만약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쉽게 약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의지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며 이로써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혼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의 도움은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고 실제 이웃 사랑을 행할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랑의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법을 잘 알고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심장을 굳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안다. 이런 추종자들은 사탄의 진정한 종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영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에는 나는 그의 의지를 이미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의지가 아주 약해 내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평가하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사역을 요구하는지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진지한 도우려는 의지가 있지만 강요에 의해 실행하지 못해야만 하게 된 경우 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지 너희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진실됨이 부족한 유일한 의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목표인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을 큰 열심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커지고 너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이로써 너희가 하늘나라를 얻는 일이다.

아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B.D. No. 7284

1959년 2월 16일

내 대적자가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이미 사람의 의지가 대적자의 권세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첫 번째이고 그의 관점이 십자가를 향했으면, 대적자는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자유하다.

대적자는 의지에 역사할 수 없다. 나 자신도 사람의 의지가 올바른 길을 향하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주 연약해져 있다. 의지가 아직 올바르게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의지는 예전의 권세 아래 머문다. 그러므로 너희의 첫 번째 기도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하게 이런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의지를 내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 얻었기 때문이다.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일은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너희는 이미 작은 구함을 통해 너희에게 강한 의지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할 것이고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그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원수와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주기를 구할 것이다. 내 사랑이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되어 나온 너희 모두에게 향하는 일이 확실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자요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일이 필요하고 너희가 그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대해 모든 인류를 위한 그의 십자가에 죽음의 이유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편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 된 인류 때문에 행해진 일을 알게 돌본다. 사람들의 관점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고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모든 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단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지만 하면 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긍휼의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24/136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사람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항상 또 다시 연약함에 빠지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 대적자는 무능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전적으로 대적자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그의 죄를 옮겨야만 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유일하게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원하고 그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면, 그는 방해받을 수 없다. 이를 방해할 권한이 대적자에게 없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향한 의지가 최고이며 최선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그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단지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진실로 응답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고 나에게 구속을 받기 원하는 너희의 자세를 증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단지 보호가 필요하고 너희의 대적자에 대항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는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되는 체험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강한 의지를 구매해주기 위해 너희의 원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아멘

무능력을 해결하는 일. 기도와 구함.

B.D. No. 7741

1960년 11월 10일

사랑이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기력 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함을 알아야 하고 너희가 아직 너희 혼에 작업을 해야만 함을 알아야 하고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아직 사랑으로 변화시켜야만 함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무능력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 자신이 아직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너희를 도와주기를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사랑의 불을 피우기를 구하고 즉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하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을 너희는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너희 안에서 사랑이 밝은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없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너희 안에 내 능력을 넘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이 결과로써 항상 너희 안에 사랑을 행하려는 증가 된 소원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영적인 기도를 들어준다.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내 사랑의 힘을 요구하면, 이는 영적인 기도이다. 나는 이런 기도를 자원하여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사랑 안에서 살려는 의지를 가지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혼이 성숙하게 되기 원하면, 나와 연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이런 연결이 없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이로써 너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 안에 내 사랑의 불씨가 담겨 있고 즉 나와 연결을 항상 이룰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행할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능력일뿐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면, 너희는 항상 능력과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의 성품을 다시 갈망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비추임 앞에 너희 자신을 연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요구가 너희에게 주어지던지 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연약함과 무능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긴밀하게 헌신하면, 너희가 내 능력을 받기 원하면, 연약함과 무능함이 즉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적으로 사랑을 행하려는 자극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것도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와 연결이 너희를 이미 행복하게 하고 너희가 항상 내 뜻을 성취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더 열심히 나를 추구한다. 너희의 영이 깨어나 항상 더욱 내 뜻을 깨달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성품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 너희 주변의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너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역사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서 내가 직접 표현하는 사랑이 너희를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능력하게 느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단지 자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놔두기를 원치 않고 너희가 단지 그에게 구하면, 진실로 충만하게 제공해 줄 너희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모든 구함은 나와 연결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든 연결은 사랑의 힘이 흘러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나를 생각할 것이다. 또는 나와 연결된 사람은 항상 사랑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자신을 절대로 연약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와 연결이 된 사람에게 내가 임재하기 때문이다. 내 임재는 모든 무능력을 사라지게 한다. 너희가 한 동안 무능력하게 느끼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긴밀한 연결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자녀처럼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단지 너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B.D. No. 7762

1960년 12월 2일

나는 너희가 너희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희 혼자 힘의 너무 연약함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게 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초기에는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게 머물고 너희에게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향하게 할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강하게 돼야만 한다. 단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에게 받쳤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 대적자는 절대 스스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신이 원하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 강한 의지와 능력의 제공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하고 내 의지 아래 두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내 뜻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 너희의 상태는 빛과 능력의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상태를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공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없고 너희는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밝혀 주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원하면, 너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위해 단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예수 안의 나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도움을 주기를 너희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구속사역을 믿는 가운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의 결과인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다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이런 구속역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분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였을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남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B.D. No. 7066

1958년 3월 14일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공훈의 역사를 믿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세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 나 자신에게 합당한 곁형체가 되어 나를 전적으로 모두 자신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 예수는 영원한 너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너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 부족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그러므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한때 너희를 위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해준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이 길을 통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너희 혼이 이제 비로소 전에 가졌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도움을 줘야만 하고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헤아려 보거나 또는 증명

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변을 관찰하고 창조물에 대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구속사역의 의미를 먼저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 시대가 되었고 전적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이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혼들이 축복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많은 혼들이 이제 비로소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그들이 원래 초기에 생성되어 나온 곳에 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원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그의 이름이 빛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진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로써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너희 안건을 아뢰면, 너희는 잘못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짓누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항상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로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너희는 비로소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들어선다. 왜냐하면 이 길 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힘과 은혜를 구하는 요청은 언제나 성취가 된다.

B.D. No. 8148

1962년 4월 11일

그리고 너희는 언제든지 내 은혜와 힘을 요청할 수 있고 너희는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단지 받기를 원하면,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너희 안의 힘인 사랑이 부족한 동안에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힘을 구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행하고 너희의 약점을 극복하고 너희가 사랑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절대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것이고 너희가 또한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또한 풍부한 힘과 빛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이제 힘과 빛을 은혜의 선물로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특별하게 힘과 빛을 주는 일은 은혜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힘과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너희가 단지 나에게 힘과 빛을 구하면, 너희가 이제 나로부터 선물의 형태로 힘과 빛을 다시 받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요청을 통해 나를 빛과 힘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연약하고 빛이 없는 상태로 머물 필요가 없고 그의 기도는 진실로 성취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성품이 부족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면, 너희가 또한 겸손하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한때 교만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연약하고 어두운 영이 되었던 너희가 이제 자원하여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함이 있는 존재를 좋아하지 않고 그가 한때 외면했던 나에게 그의 의지가 다시 향하면, 나 자신이 그가 한때 가졌던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그를 돕는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깊은 곳까지 따랐던 내 대적자가 아직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 내면에 아직 연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교만한 영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고 나에게 향하기 위해 내 대적자와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동안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채워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나에게 드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을 막고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법을 안다.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나를 고백하고 후회하는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희를 자녀로 다시 영접해주기를 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기도도 내 귀를 스쳐 지나 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서 너희가 이제 전적인 힘과 빛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목표인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내 은혜가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는 자원하여 이끌림에 자신을 맡길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요청하고 활용할 것이고 너희 내면이 빛이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은혜의 힘이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가 한때 잃었던 빛을 너희에게 준다.

심장에서 나오는 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고 모든 영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도 모든 연약함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내 힘의 흐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힘의 흐름이 혼이 살아나게 하고 혼에 대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고 여기면, 육체도 혼에 대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육체의 연약함이 종종 사람들이 은혜와 힘을 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내 은혜를 부여줄 것이고 너희에게 제한이 없게 베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네가 자유의지로 수행해야만 하는 일인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내 은혜와 힘을 받지 못하게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또한 내 은혜와 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내 은혜의 힘을 받지 못하면, 높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과 은혜를 구하는 요청이 내 귀에 도달하면, 너희는 내가 이런 요청을 듣고 성취시켜준다는 것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깨닫고 나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고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너희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죄의 용서.

B.D. No. 0906

1939년 5월 10일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에게 헌신하며 도피할 때, 그들이 또한 아버지가 최고로 선하고 최고의 존재이고, 아버지로 부터 모든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 나와 관계를 깨닫고 어린애처럼 구하고, 겸손하게 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자신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단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는 경우,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그들은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다. 힘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와 나의 뜻 안에 머무는 일에 단지 나를 섬기겠다는 침묵의 확신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의 선한 의지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가 잘못할 때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심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를 단지 희귀하게 원한다. 왜냐하면 이 요청과 동시에 너희 안에서 결단이 성숙하여, 절대로 옛 오류에 다시 빠지지 않아야만 하고, 너희는 종종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심장을 나에게 바쳐, 내가 너희 심장을 축복하고, 나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 특별한 죄 사함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심장 내면의 평화를 통해 너희의 죄짐이 너희에게서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너희의 구원자이자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구속역사의 은혜를 취할 것이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너희에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원하여 나의 구속역사를 인정한다는 너희의 보증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서 모든 죄를 없애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심장으로 안아주기를 원한다. 만약 너희가 단지 나와 하나가 되려는 갈망을 갖는다면, 너희는 죄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가장 작은 퇴보도 잘못을 깨닫고, 긴밀하게 용서를 구하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도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심장의 위험 가운데 아버지이고, 그의 구세주 주님인 나에게 나의 도움을 구할 때, 그의 죄는 용

서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를 쾌활하게 하고, 위로해줄 것이고,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무한히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기 때문이다.

아멘

중보자인 그리스도. 죄의 용서. 구속 역사를 인정하는 일.

B.D. No. 1430

1940년 5월 22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죄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너희의 죄짐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죄짐이 있고 그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한다면, 너희의 모든 의지를 아버지께 돌리고, 그와 그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기 만하면 된다. 너희가 진심 어린 소원으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죄짐을 벗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의 죄짐을 지고, 죄짐을 위해 죽은 강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그의 사랑과 그의 중보를 구하기 만하면 된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구세주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의식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구속역사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짐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죄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짐으로 느껴야만 하고, 죄를 경멸해야만 하고, 해방되기 위한 갈망이 너희 안에 아주 강해, 너희가 구세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활용하여, 모든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런 의지는 구속역사를 시인하고, 인정한다. 그러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된다. 너희는 그에게 향하고, 죄의 근원자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행한 불의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이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고, 너희가 긍휼을 구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그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계명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와의 연결을 이룬다. 너희는 이를 불의로 깨닫고, 더 이상 오만하게 되거나, 너희의 가치를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겸손하게 아버지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에게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아멘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B.D. No. 1434

1940년 5월 24일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주님이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세주를 예고했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식에서 구속을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했다. 그러나 세상은, 즉 사람 자신은 이 구속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은혜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강하게 된,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의지이다. 즉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이다. 이전에는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짐으로 인해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적자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기도를 통해 의지가 강해지기를 구해야만 한다. 사람이 동시에 사랑의 존재로 자신을 형성해야만 한다. 이일은 단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을 통해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속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서야만 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인간은 위대한 긍휼의 역사를 시인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고,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께 그의 중보기도를 간청하는 사람은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모든 죄짐이 해결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아들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모든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또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세주 자신이 그에게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시인하고,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아주 큰 죄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 그는 간청하면서 두 손을 들어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의 역사의 규모는 인간이 하늘의 기쁨과 저세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할 때, 즉 구속받은 상태와 묶임을 받는 상태를 상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고,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세상의 혼들을 고통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님의 구속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논쟁을 벌이는 경우,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었고, 그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닥치는 일은 그 자신의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존재도 구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아주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이 이 의지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의지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이 없이는 대적자의 권세가 너무 커서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B.D. No. 5428

1952년 7월 4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 너희 사람들은 아직 서로 적대감을 너무 자주 허용한다. 너희는 아직 너희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너희가 악한 일을 바라는 일을 삼가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일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필요한 인내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낸다. 그러므로 아직 전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 안의 사랑이 더 이상 적대적인 생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 권세있게 되지 못했다. 너희는 이웃을 형제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을 것이고 그렇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너희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진지한 요청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내 용서를 얻기 원하면, 너희의 채무자들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결심을 위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의 죄를 오랜동안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적대적인 생각은 응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반면에 원수에게 행하는 사랑은 원수 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모든 불쾌한 생각은 악의 세력이 흡수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면 악은 단지 악을 낳고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악이 반응하고, 악의 힘이 빠르게 증가되어 단지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선으로 대항해서, 악을 약하게 하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야 한다. 너희는 좋은 생각을 보내야 하고 또한 너희의 원수들에게 단지 좋은 일을 기원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생각은 속죄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즉 원한과 증오를 달래고 다시 좋은 감정이 깨어나게 하고, 심지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의 힘은 항상 선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적대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판단하는 적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관대할 수 있느냐? 내 사랑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면, 너희의 사랑이 관대하게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원수에게 선한 생각을 하고, 너희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

고, 항상 너희 안의 사랑이 판단하게 하라. 사랑은 확실하게 용서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증오와 복수의 느낌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 자신이 있고, 나는 진실로 사랑이 없이 판단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죄인을 용서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7717

1960년 10월 1일

너희 모두는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영들을 창조할 때 세운 내 목표에 도달한다. 단지 내 사랑이 결정할 수 있으면, 너희 모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영원한 법을 어기면서 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던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너희 사람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은 아주 서로 다른 긴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성장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묶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인 너희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통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 가지 않게 너희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의 인도자로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높은 곳에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면, 이로써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한 그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타락하였을 때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의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고 공의가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넘치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이런 희생제사를 이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감쌀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했다. 너희가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성장단계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항상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항상 강해질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나 자신을 영원히 선물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